

아산 정신의 동아시아적 배경과 미래 전망

「화식열전(貨殖列傳)」속 상인 정신의 현재적 현현(顯現)으로서의 아산(峨山) 정주영(鄭周永)

박경남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교수)

<목 차>

1. 서 론
 2. 동아시아 상인 정신의 원형(原型)과 아산
 3. 아산 정신의 동아시아적 전통과 미래 전망
 4. 결 론
- 참고 문헌

<국문 초록>

본고는 동아시아 상인 정신의 원형(原型)을 살펴 볼 수 있는 「화식열전」속 상인들의 삶과 정신을 아산 정신과의 연관 속에서 살펴보고, 동아시아 전통 상인 정신의 현재적 현현으로서의 아산 정신을 재조명해 보았다.

이를 위해 본고는 사마천이 「화식열전」과 「평준서」에 소개한 여러 인물 중 아산의 삶과 견주어 볼만한 ‘탁씨’·‘범려’·‘복식’을 택하여 그들 각각의 삶과 아산의 삶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태도를,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불굴의 정신’·‘부(富)를 나누는 베품(仁)의 정신’·‘사익(私益)을 넘은 보국(輔國)의 정신’으로 요약하여 비교 검토했다. 분석과정에서 동아시아 전통 상인의 생각과 삶이 아산의 삶과 정신 속에 더욱 확대되고 심화된 형태로 발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도전과 창조의 기업가 정신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지금,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는 지금, 동아시아 상인의 전통 속에서 도출한 이 세 정신은 비록 과거의 인물로부터 추출해 낸 것이긴 하지만 더 나은 현재와 더욱 밝은 미래의 전망을 위해서 우리 기업가들에게 긴급하고 절실히 요청되는 것들이라 하겠다.

주요어 : 아산 정신, 불굴의 정신, 나눔의 정신, 보국의 정신, 「화식열전」

1. 서론

유교 사상이 근본 바탕을 이루고 있는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청빈낙도(淸貧樂道)를 가치 있는 삶으로 생각하여서 군자를 존경하고 사농공상의 맨 마지막에 붙어 있는 ‘상(商)’을 천시하는 경향이 아주 강했다. 한 나라의 대통령도 앞장서서 세일즈맨 역할을 할 만큼 기업이 한 나라의 경제를 좌우하는 지금은 인식이 다소 변했다고는 하나, 그래도 역시 기업을 보는 시각은 마뜩찮은 옆 눈질이다. ... (중략)... 요즘 들어 기업가를 흠모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 기업가가 아니라 미국의 기업가가 그 대상이라고 한다.¹

아산 정주영은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술회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기업가에 대한 사람들의 뿌리 깊은 천시를 안타까워한 바 있다. 그가 말한 것처럼 현재의 세계는 “한 나라의 대통령”도 “세일즈맨”이 되어 자국의 물건을 팔러 다니는 시대가 되었다. 물건을 만들어 내다 파는 기업가만 상인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도 자기 나라의 발전을 위해 기꺼이 상인으로서의 역할을 해야만 살아남는 치열한 국제 경쟁의 시대가 된 것이다.

1950년대의 전후 복구와 이후의 경제개발 과정에서 장기적인 계획과 비전을 제시했던 ‘정부’와 묵묵히 고통을 감내했던 ‘노동자’와 함께, 진취적 기상으로 세계와 경쟁하려 했던 ‘기업가’들은 분명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의 하나였다. 하지만, 아무런 자원도 기술도 없는 척박한 환경에서 국가의 정책과 근면한 노동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한강의 기적’을 이룩했던 불굴의 기업가들이 있음에도, 아산 정주영의 말에 드러나듯 우리는 우리나라의 기업가들을 존경하기 보다는 “미국의 기업가”들을 흠모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 1960년대 이후 관 주도의 경제개발과정에서 대다수의 기업들이 각종의 금융 특혜와 저임금 정책의 기반아래 성장함으로써 기업가의 능력이 과소평가되어 왔고, 비생산적인 부동산 투기와 이중장부를 통한 세금

¹ 정주영(1998), 372~375면.

포탈 및 비상장 회사 주식을 이용한 편법적 경영 승계 등으로 인해 이른바 재벌로 지칭되는 대다수 기업들이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대 기업가들에게 마땅히 요구되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통한 전문 경영의 확립, 투명한 기업 운영과 성실한 세금 납부, 기술 개발을 통한 지속적인 생산성 확보, 성장의 이익을 노동자 및 사회와 함께 나누려는 분배 정신의 확립 등은 우리 기업 및 기업인들이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할 하나의 과제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이와 같은 기업 경영의 모범적 사례들이 미국 등 선진국의 예에서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중 일부는 이미 현재의 우리 기업들이 시행하고 있고, 또 동아시아 상인 정신의 원형 중에 이미 존재하는 것이기도 하다. 물론 지금 우리 기업들이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메꾸고 더 나은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미국 등 서구의 선진 경영 사례를 부단히 배워야하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우리 자신의 사상과 정서 및 문화의 뿌리이기도 한 동아시아의 전통 속에서 바람직한 상인 정신의 원형을 재발견하고, 또한 우리 기업가의 활동 속에서 모범적인 사례들을 발굴하고 선양해 나가는 것 역시 필요한 일이지 않을까 한다. 그렇게 할 때에만 우리는 근대의 서구 문화 이식론이나 영향론에서 벗어나, 우리 자신 속에 잠재되어 있는 뿌리 깊은 전통 속에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자본주의 정신, 혹은 기업가 정신을 새롭게 재구성하며 더 나은 미래를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고는 이러한 취지로 동아시아 상인 열전의 원류이자 효시인 사마천의 「화식열전」을 중심으로 그 속에 서술된 경제관념과 그 글에 묘사된 상인들의 모습을 통해 동아시아 상인 정신의 원형을 재발견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현대 한국의 기업가중 아산 정주영의 정신과 관련지어 논의함으로써, 동아시아 문화 전통과 배경 속에 잠재된 우리 자신이 지향해야 할 미래 기업가의 모습을 전망하고자 한다.

2. 동아시아 상인 정신의 원형(原型)과 아산

지금은 유행처럼 흘러가버린 담론이 되긴 했지만, 전후 동아시아 경제 성장의 사상사적·정신사적 배경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유교 자본주의’라는 용어가 각광을 받은 적이

있다. ‘유가 윤리는 자본주의를 낳을 수 없다’고 판단한 베버의 서구 기독교 중심주의적 자본주의 발전관을 ‘유교 자본주의론’이 한국·일본·홍콩·대만 등 동아시아 유교문화권 국가들의 경제성장을 근거로 효과적으로 비판했다는 점에서, 필자는 그 의의를 충분히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 유교 자본주의론은 유교를 동아시아 자본주의 성립에 영향을 미친 여러 요인 중의 하나로 보지 않고, 마치 그것이 동아시아 자본주의 발전의 유일무이한 핵심인 양 설명함으로써 또 다른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한다.² 서구 문화가 기독교만으로 설명될 수 없듯이 동양의 문화도 유교만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특히 경제사상이나 상인 정신을 논함에 있어서, 사마천의 「화식열전(貨殖列傳)」 및 「평준서(平準書)」 속에 서술된 경제관념과 상인들의 삶은 다른 어떤 텍스트보다 동아시아 상인 정신의 원형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중국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에서도 널리 읽혔던 사마천의 『사기(史記)』에 피력된 경제적 인간관과 그 속에 서술된 상인의 삶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상인 정신의 원류를 환기하고자 한다. 그리고 아산의 기업가 정신중 이와 관련지어 논의할만한 내용들을 상호 비교 검토함으로써 동아시아 상인 정신의 전통 속에서 현재의 기업가 정신을 재음미해 보고자 한다.

(가) 노자(老子)는 “최상의 정치는 이웃 나라가 서로 보이고 닭과 개 짖는 소리가 들리며, 백성들이 각자의 음식을 맛있게 먹고, 그 옷을 아름답게 여기며 풍속을 편안하게 여기고 자신들의 일을 즐거워하면서 늙어 죽을 때까지 서로 왕래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나) 그러나 만약 이렇게 되도록 노력하면서 요즘 백성들의 이목을 끌고자 한다면 거의 실행할 수 없을 것이다. 태사공은 말한다. “무릇 신농씨(神農氏) 이전의 일에 대해서 나는 잘 모른다. 『시경(詩經)』이나 『서경(書經)』에 쓰여 있는 우(虞)나라와 하(夏)나라 이후의 일을 보면, 사람들의 눈과 귀는 좋은 소리와 듣고 예쁜 얼굴을 보려하고, 입은 맛있는 고기를 먹고 싶어 하며, 몸은 편하고 즐거운 것을 안락하게 여기고, 마음은 권세와 능력이 가져다 준 영화로움을 자랑하려 한다.

² 베버 논점에 대한 비판과 서구 및 한국에서의 유교자본주의론의 전개 과정에 대해서는 김흥경(1999); 김석근(2006), 63~74면; 조준현 외 4인(2007), 249~253; 이재석(2011), 207~214면 참조.

(다) 이러한 풍속이 백성들을 전염시킨 지 이미 오래되어서 비록 오묘한 말로 집집마다 설득하려해도 끝내 교화시킬 수가 없다. 그러므로 정치를 가장 잘하는 사람은 백성들을 따르고, 그 다음은 이익으로써 백성들을 이끌고, 그 다음은 백성들을 타일러 가르치고, 또 그 다음은 백성들을 가지런히 바로잡으려하고, 가장 정치를 못하는 자는 백성들과 다툰다.³

윗글은 『사기』 「화식열전」의 가장 처음에 나오는 대목이다. 사마천은 상인 및 부(富)를 축적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꺼내기에 앞서, 노자(老子)의 한 구절을 가져와 그 서두를 풀어내고 있다. 그 대목은 바로 소국과민(小國寡民)을 지향하는 노자의 생각이 피력된 곳이다. 위 (가)에 언급되었듯 노자는 “이웃 나라가 서로 보이고, 닭과 개 짖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작은 나라에서 “백성들이 각자의 음식”과 “옷”에 만족하며, 자기 나라의 “풍속을 편안”히 여기고, “자신들의 일”을 즐겁게 받아들이는 삶이 이루어진 국가를 “최상의 정치”가 행해지는 이상적인 나라로 본 것이다.

하지만, (나)에 보이듯 사마천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바로 그가 바라본 현실 속 사람들은 노자가 지향하는 ‘작고 소박하지만, 그에 만족하는 삶’에 그닥 귀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런 얘기로 “요즘 백성들의 이목을 끌고자 한다면 거의 실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사마천은 단언한다. 노자가 그리는 이상적인 삶은 아직 문명이 싹트기 전, 소박한 삶을 살았던 “신농씨(神農氏)” 이전 시대에는 원래 그런 삶만이 가능했기에 소박한 생활에 익숙한 사람들의 마음을 설득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역사가로서 사마천은 기록에도 없는 그 시대의 이야기는 일단 “잘 모르겠다”고 논외로 하면서, “『시경(詩經)』이나 『서경(書經)』” 등의 문헌 기록에 전하는 “우(虞)나라와 하(夏)나라 이후”의 백성들의 삶을 보건대, 사람들은 모두 “좋은 음악”을 들으려 하고, “예쁜 얼굴”을 좋아하며, “맛있는 고기”를 먹고 싶어 하고, “편하고 즐거운 것”을 찾으며, “권세와 능력”에 달려오는 “영화로움”을 자랑하려 한다고 말한다.

3 “老子曰：‘至治之極，鄰國相望，雞狗之聲相聞，民各甘其食，美其服，安其俗，樂其業，至老死，不相往來。’必用此爲務，輒近世塗民耳目，則幾無行矣。太史公曰：‘夫神農以前，吾不知已。至若『詩』、『書』所述虞夏以來，耳目欲極聲色之好，口欲窮芻豢之味，身安逸樂，而心誇矜能之榮使。俗之漸民，久矣。雖戶說以眇論，終不能化。故善者因之，其次利道之，其次教誨之，其次整齊之，最下者與之爭。’”(『史記』，「貨殖列傳」)

세상이 이렇게 변해버렸다면, 그래서 작고 소박한 삶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고 예쁘고 맛있는 것을 추구하는 백성들을 만족시키는 정치를 해야 한다면, 이제 정치가는 어떻게 이 상황에 대처해야 하는가? (다)에서 사마천은 아주 간단명료하게 말한다. 백성들이 이미 잘 먹고 잘 입고, 편하고 즐거운 삶을 추구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습성과 풍속을 바꾸려고, 노자처럼 “오묘한 말로” “설득하려해도” 끝내 설득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백성들과 다투”는 “가장 정치를 못하는 자”의 대처방법일 뿐이다. 그렇다면 가장 좋은 정치란 무엇인가? 사마천이 생각하기에 그것은 바로 “백성들을 따르”는 정치이다. 따라서 이미 백성들이 ‘작고 소박한 삶’이 아니라 맛있는 것을 먹고 좋은 음악을 들을 수 있는 ‘편안하고 인락한 삶’을 추구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백성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좋은 정치를 펴고자 하는 정치가 가 해야 할 일인 것이다.

물론, 사마천의 이러한 단언(斷言)은 부국강병을 추구하며 변방의 흉노족을 토벌하고, 비단길을 통해 서역(西域)에까지 교역의 범위를 확장했던 한(漢) 무제(武帝) 시기의 시대적 분위기를 십분 반영한 것일 터이다. 그러나 또한 사마천의 말처럼 문명이 시작되고부터 인류의 역사는 더욱 편안하고 윤택한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을 실현하는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화식열전」 속에 언급되고 있는 저 “근세의 백성들”(近世塗民)은 곧 보편적 인간의 욕망을 대변한다고도 볼 수 있다. 문명에 대한 인간의 욕구를 거부하고 있는 노자와 달리, 그리고 욕망의 절제를 추구하며 안빈낙도(安貧樂道)의 삶을 찬양하는 유가(儒家)와도 달리, 사마천은 “더 좋고, 더욱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인간의 상승 지향의 욕망 추구를 긍정했다는 점에서 독특한 지점에 있는 사상가라고 할 것이다. 그는 특히 보통 사람들의 풍요로운 삶과 부유하고자 하는 욕망을 긍정했을 뿐 아니라, 「화식열전」의 여러 인물들을 통해 지금으로부터 이천여 년 전 부(富)를 축적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니, 곧 한 사람의 선구적인 경제 사상가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그는 정전제(井田制)와 사농공상(士農工商)의 위계화로 대표되는 유가의 농본주의(農本主義)나 농본억상(農本抑商)을 추구했던 법가와도 달리, 『주서(周書)』를 인용하며 농·공·상인과 광업 및 임수산업 종사자 등 모든 생산자들의 활동이 국부(國富)의 원천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보고, 이들을 평등한 관점에서 바라보았다. 또한 그러한

생각의 연장선상에서 사마천은 가난하거나 부유하게 되는 것은 “누가 빼앗거나 부여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이러한 생산자들의 생산 활동을 잘 조직하고 장려해서 경제 운영을 “숨씨 있게 하는 자”는 “여유 있게 되고”, “서툰 자는 부족하게 되는 것”이라고 역설하고 있기도 하다.⁴

이렇듯 부(富)를 욕망하는 인간의 삶을 긍정하고, 빈부(貧富)를 자기 의지와 무관하게 주어지는 천운(天運)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개인 및 국가의 경제 운용 능력에 따른 것으로 생각한 그였기에, 『사기』를 저술하면서 사마천은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 부(富)를 이룬 ‘상인 및 경제인들의 전기’인 「화식열전」을 기록했던 것이다. 본고에서는 지면의 제약상 그 모든 성공사례들을 다 소개할 수는 없으므로, 본고의 또 다른 주제인 아산 정주영의 기업가 정신과 연관지어 생각해 볼만한 세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고대 상인 정신의 원형을 음미해보고자 한다.

1) 위기를 기회로 만든 불굴의 정신

아산 정주영의 일화 중에는 위기 속에서 항상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기지를 발휘하여 위기 상황을 헤치고 오히려 더 큰 기회를 만든 사례가 허다하다. 보통 사람의 상식은 무모하게 보이는 일이지만, 기업가로 성장하며 터득한 오래된 현장 경험과 경제인으로서의 본능적 감각으로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가장 적절하고도 올바른 대안을 제시했던 경우를 자주 접할 수 있다. 현대건설이 참여한 공사 중 1967년의 소양강댐 건설과 1968년에 시작된 경부고속도로 건설, 1975년의 중동 진출은 일반적 상식을 뛰어 넘는 혜안과 독심으로 척박한 조건을 이겨내거나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더 큰 성공을 이룬 사례들이다. 또한, 국내외의 비웃음을 뒤로하고 자동차의 국산화 의지를 관철하여 1976년 ‘포니’라는 최초의 국산차 고유 모델을 만든 사례라든지, 영국의 차관을 끌어들이고 그리스 선주의 주문을 받아, 1974년 6월 울산 조선소 준공과 함께 주문받은 배 2척을 동시에 건조(建造)했던 것, 그리고 1984년 서산 천수만 간척 공사에 폐유조선을 이용해 최종 물막이 공사를 완수했던 것 등은 통념을 뒤엎는 발상과

⁴ “『周書』曰：‘農不出則乏其食，工不出則乏其事，商不出則三寶絕，虞不出則財匱少。財匱少而山澤不辟矣。’此四者，民所衣食之原也。原大則饒，原小則鮮，上則富國，下則富家。貧富之道，莫之奪予，而巧者有餘，拙者不足。”(『史記』, 『貨殖列傳』)

기지로 세계가 깜짝 놀랄만한 성취를 이룬 한국 경제사의 일대 쾌거를 이룬 사건들이었다.

동아시아 상인 문학의 고전인 「화식열전」에도 이와 유사한 흥미로운 사례가 있다. 전쟁포로가 되어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다른 땅으로 강제 이주하게 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도, 남다른 기지와 해안을 발휘해, 오히려 큰 부를 획득한 촉(蜀) 지방 탁씨(卓氏)의 일화가 그것이다. 위기 속에 대안을 찾았던 허다한 아산의 일화 중, 중동 진출 과정 및 성공 사례와 견주어 탁씨(卓氏)의 성공 사례를 함께 고찰해 봄으로써 아득한 시간을 넘어 동아시아 상인 정신의 원류와 맞닿아 있는 아산의 기업가 정신을 새삼 흥미해 보고자 한다.

촉(蜀) 지방 탁씨(卓氏)의 조상은 조(趙)나라 사람으로 철을 불리고 만드는 대장간업으로 부호가 되었다. 진(秦)나라가 조나라를 무너뜨렸을 때 탁씨를 이주시켰다. 탁씨는 재물을 모두 빼앗겼으므로, 부부 둘이서만 작은 수레를 끌고 이주지로 갔다. 이주하게 된 여러 포로들은 재산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앞 다투어 관리에게 뇌물을 주고 가까운 곳으로 가게 해달라고 부탁하여 가맹(賸萌)에 거처하였다.

오직 탁씨만이 “가맹은 땅이 좁고 척박하다. 듣자니 민산(汶山) 아래는 땅이 비옥하여 큰 토란이 있어서 죽을 때까지 굶주리지 않으며, 백성들이 시장에서 거래하니 장사하기에 쉽다”고 하였다. 이에 그는 멀리 보내줄 것을 요구하여 임공(臨邛)에 도달하게 되자 매우 기뻐하며 철광이 있는 산으로 들어가 쇠를 두드려 물건을 만들었다. 또한 계책을 잘 세워 일을 하니, 결국은 진(滇)과 촉 땅의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게 되었다.⁵

돈을 잡으려면 돈이 많은 곳으로 가야한다. 게다가 월남 특수도 끝나고, 지속적인 성장을 하려면 다른 해외 돌파구를 찾아야 했다. ...(중략)... 회사에서는 해외 건설 부장이었던 아우 인영이를 비롯해서 나의 중동 진출 결심

⁵ “蜀卓氏之先，趙人也，用鐵冶富。秦破趙，遷卓氏。卓氏見虜略，獨夫妻推輦，行詣遷處。諸遷虜少有餘財，爭與吏，求近處，處賸萌。唯卓氏曰：‘此地狹薄。吾聞汶山之下，沃野，下有蹲鴟，至死不飢。民工於市，易買。’乃求遠遷，致之臨邛，大喜，即鐵山鼓鑄，運籌策，傾滇蜀之民。”(『史記』，「貨殖列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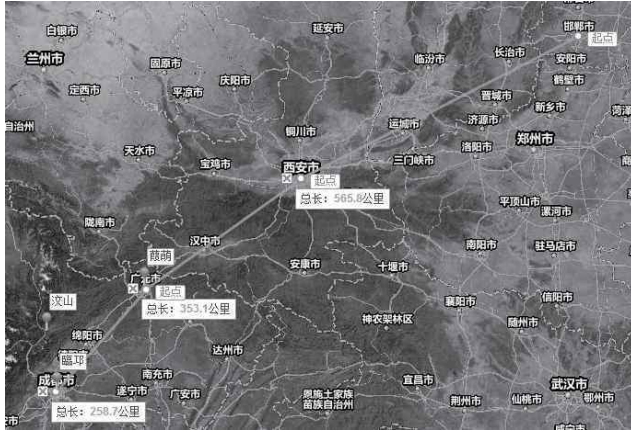
을 과욕이라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다. …(중략)… 우리의 중등 진출에 대해서 미국과 유럽, 일본의 경제계는 한국 건설업체들의 기술과 자본, 해외 건설 경험 등을 과소평가해서 처음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 …(중략)… 주베일 산업항 공사는 몇 세기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한, 세계 건설업계가 20세기 최대의 대역사로 불렸던 일감이었다.⁶

첫 번째 글은 「화식열전」에 나오는 전국(戰國)시대 말기 탁씨의 일화이고, 두 번째 글은 아산 정주영의 이야기다. 첫 번째 글의 모두(冒頭)에 나와 있듯 탁씨는 원래 현재의 산서(山西)·하남(河南)·하북(河北) 지역에 걸쳐 있었던 조(趙)나라 사람이었다. 탁씨의 집안은 조상대대로 철을 만들고 가공하는 대장간을 해서 조나라의 부호(富豪)가 되었다. 그런데 “진(秦)나라가 조나라를 무너뜨리자” 탁씨는 줄지에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진(秦)나라 땅인 현 중국의 사천성(四川省) 지역 촉(蜀) 땅으로 강제 이주를 해야 하는 불쌍한 처지가 되었다. 조상대대로 모아 놓았던 재산을 한 순간에 빼앗기고 전쟁 포로가 되어 “부부 둘이서” 겨우 “작은 수레를 끌고” 고국 조나라를 떠나 먼 이국땅으로 이주해 가야 했으니 그 참담하고 황망한 심정이야 이루 다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탁씨처럼 “이주하게 된 여러 포로들”이 “관리에게 뇌물을 주고”서라도 어떻게든 고국 조나라 땅에서 조금이라도 “가까운 곳”인 진나라 땅 가맹(賈萌)에 정착하고자 했던 것은, 모르긴 몰라도 모든 것을 한 순간에 빼앗겨 버린 텅 빈 상실감과 낯선 땅으로 잡혀가야 하는 두려움을 어떻게든 줄여보고자 하는 안간힘이었을 터이다.

하지만, 모든 것을 빼앗기고 강제 이주하는 이 위기의 순간에도 탁씨는 보통 사람과 달리 조상대대로 이어 내려온 가업(家業)인 대장간업을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전쟁 포로로 이주하는 자신의 신세를 더 좋은 철광산과 시장을 개척하는 길로 삼은 것이다. 그는 “땅이 좁고 척박”하여 먹고 살기에 힘든 작은 도시인 가맹(賈萌)을 뒤로 하고, “땅이 비옥하여” 먹을 것이 풍부하고, 백성들이 거래하는 큰 시장이 형성되어 “장사하기에 쉬운” 민산(汶山) 아래의 임공(臨邛)이라는 땅을 택한 것이다.

임공(臨邛)은 현 중국의 사천성(四川省) 성도시(成都市)에 속하는 지역으로 사천성(四川

⁶ 정주영(1998), 207~210면.



〈그림 3〉 탁씨(卓氏)의 이동 경로 및 거리

省)은 옛날에는 촉(蜀) 땅으로 불렸던 곳이다. 그런데 당대(唐代)의 시인 이백(李白, 701~762)이 「촉도난(蜀道難)」에서 노래했듯, “촉(蜀)으로 가는 길은” 예로부터 험난해서 “푸른 하늘 오르기보다 어려운 일”(蜀道之難, 難於上青天)로 여겨졌다. 성도시(咸陽市)는 그런 험난한 촉 땅의 산세가

분지(盆地)를 이룬 평원지역에 자리 잡은 도시로, 진나라는 촉(蜀)땅을 점령한 후, 통일 전쟁의 후방기지로 지속적으로 개발·활용하기 위해 이 지역에 지속적인 이민 정책을 펴기도 하였다. 임공(臨邛)이란 곳은 그런 촉(蜀) 땅의 가장 중심 도시로서 시장이 번성했을 뿐 아니라 근처 민산(汶山)에는 철광석이 묻혀 있어, 조나라에서 집안 대대로 “쇠를 두드려” 농기구나 가재도구 등을 팔아 부를 이룬 탁씨가 정착하기에는 최적의 조건을 갖춘 곳이었다.

탁씨는 전쟁포로로 이주해 가는 순간에도 임공(臨邛)의 이러한 지리적·경제적 조건을 간파했던 까닭에, 조(趙)나라의 수도인 한단(邯鄲)에서 진나라의 수도인 함양(咸陽: 西安)을 지나 다시 가맹(葭萌)을 거쳐, 험준한 촉 땅으로 가는 위험하고 가파른 산길을 따라 촉 땅의 중심지인 임공(臨邛)까지 장장 1177.6km나 되는 먼 길을 수레를 밀고 끌며 지나왔던 것이다. 이는 고속도로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세 번을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먼 거리다. 그렇게 먼 거리를 전쟁 포로로 끌려와서 탁씨는 마침내 큰 부를 이루었고, 그 밖의 다른 일도 계획을 잘 세워 일을 잘 해서 먼 이국땅 촉(蜀) 지역의 백성들에게까지 존경을 받게 된다.

위기를 기회로 만든 불굴의 정신과 각 지역의 특성과 판도를 정확히 꿰뚫어 본 탁씨의 지혜를, 우리는 이천 이백 여년이 지난 지금 아산의 중동 건설과정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 아산은 일찍이 자신의 해외 건설 시장 진출에 대해 이렇게 언급한 바 있다.

모험이 없으면 큰 발전도 없다. 남보다 빠른 앞일에 대한 예측 능력으로, 권력과의 결탁으로 성장하는 기업이라는 부당한 질타가 끔찍이 싫어서 남보다 앞서 뛰어든 해외 건설 시장이었다.⁷

바로 그랬다. 중동 건설은 하나의 모험이었다. 하지만, 아산은 “모험이 없으면 큰 발전도 없음”을 알고 있었다. 한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모험이 불가피한 것이라면, 이제 필요한 것은 모험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고 반드시 성공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해안이다. 아산은 “남보다 빠른 앞일에 대한 예측 능력”으로 중동 지역이 현대와 한국의 위기를 극복할 하나의 돌파구임을 간파했던 것이다. 앞서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 당시 한국은 “월남 특수도 끝나” 건설업이 불황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었다. 또한 1973년 제1차 오일쇼크로 원유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원유 전량 수입국인 우리나라 경제는 급격한 불황과 인플레이션으로 나라 전체가 부도 직전의 상황에 몰려 있었다. 당시 현대의 대표적 기업이었던 울산의 현대 조선소는 오일쇼크로 배 만드는 일거리가 없어 파리만 날리고 있는 상태였다. 게다가 현대는 그 동안의 기업 발전 과정에서 정부의 전폭적 지원 속에 많은 세금감면 특혜를 받아 정경유착의 혐의를 받고 있었던 까닭에, “권력과의 결탁으로 성장하는 기업”이라는 질타를 받고 있었다. 바로 이러한 국가와 기업 양측면의 위기를 일거에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아산은 중동 진출이라는 과감한 카드를 꺼낸 것이다.

하지만 중동 진출은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는 대책 없는 모험에 불과한 것이었다. 실제로 아산 자신이 술회하고 있듯 “아우 인영이를 비롯해서” 측근 중 꽤 많은 사람들이 아산의 “중동 진출 결심을 과욕”이라고 생각해 끝까지 반대했다. 또한 이 사업은 당시 한국의 건설업 수준에서는 너무나도 무모한 일이라서 “미국과 유럽, 일본의 경제계”등 세계 건설업계도 “처음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을 정도였다. 한국의 건설업체들은 세계의 선진 건설업체와 비교해 “기술과 자본, 해외 건설 경험” 등에서 과소평가되고 있었고, 또한 사실 그것이 현대를 제외한 한국 건설업의 일반적 수준이기도 하였다.

⁷ 정주영(1998), 102면.

하지만 1950년 ‘현대건설주식회사’ 설립 후, 국내적으로는 고령교 복구공사(1953~1955)·한강인도교 공사(1957~1958)·인천 제1도크 복구공사(1959)·단양시멘트 공장건설(1962~1964)·소양강댐 건설(1967~1973)·경부고속도로 건설(1968~1970)·부산항만공사(1974)를 진두지휘했고, 국외적으로는 태국 파타니 나라티왓 고속도로 공사(1962)와 월남 캄란만 준설 공사(1966) 등 이미 1960년대 초반부터 해외 건설 시장에 진출하여 실패와 성공 속에서 남다른 학습과 경험을 축적했던 아산⁸은 중동 진출에 강한 자신감과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게다가 1972년 3월 기공식을 하고, 2년 3개월 만에 조선소 건설과 동시에 26만 톤급의 유조선 2척을 건조해서 세계조선사에 이름을 남긴 울산 현대조선소의 기적 같은 경험은 중동 진출에 실제적인 발판이 되었다. 아산은 1975년을 중동 진출의 해로 정하고, 그에 대비해 회사에 아랍어 강좌를 개설했고, 아랍어로 ‘현대’의 홍보영화도 만들어서, 그 해 10월에는 바레인의 아스리 조선소를 착공했고, 12월에는 사우디 해군 기지 해상 공사를 시작했으며, 1976년 7월에는 마침내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사우디의 주베일 산업항 공사의 입찰에 성공했다. 9억 3천 1백 14만 달러에 낙찰된 주베일 산업항 공사의 규모는 1976년 당시의 환율로 환산하면 4천 6백 억원으로 이는 그해 우리나라 예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액수였다. 이 공사를 완벽하게 마무리한 현대 건설은 이후 라스알가르 주택항 공사, 쿠웨이트 슈아이바항 확장 공사, 두바이 발전소 공사 등 대형 공사를 연속 수주함으로써 미국·영국·서독·네덜란드 등 미주유럽 선진국의 독무대였던 중동 지역에 ‘현대’와 ‘한국’의 이름을 인상 깊게 남길 수 있었다.⁹

조(趙)나라 사람 탁씨가 전쟁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위기의 순간에도 집안의 가업인 대장간업을 통해 더 큰 사업을 벌일 수 있는 임공(臨邛)이란 곳을 택해 큰 부를 이루었듯, 아산은 제4차 중동전쟁을 계기로 일어난 오일 쇼크로 현대와 한국이 부도 직전의 상황에 몰린 위기의 순간에, 현대건설과 현대조선소의 경험을 기반으로 돈이 넘쳐났던 중동으로 진출하여 거대한 성공을 이룬 것이다. 특히 아산은 주베일 산업항 공사를

⁸ 아산은 고령교 복구공사, 태국 파타니 나라티왓 고속도로 공사에서는 막대한 손해를 입지만, 그런 경험을 오히려 좋은 학습의 기회로 삼았다. 이에 대해서는 강대중(2015), 〇〇~〇〇면 참조.

⁹ 현대건설·현대조선소 설립 및 국내외 공사수주와 중동진출과정은 정주영(1998) 54~84, 93~129, 206~233면 참조.

위해 울산조선소에서 철구조물을 직접 만들어 주베일 산업항까지 장장 1만 2천km에 달하는 거리를 바지선으로 19번이나 실어 날라, 침체되어 있는 울산조선소를 살리고 공기를 단축시키는 놀라운 계획을 실행했다. 이는 마치 탁씨가 대장간업으로 더 큰 성공을 하기 위해 험준하고 가파른 산길을 지나 장장 1177.6km나 되는 먼 길을 수레를 끌고 임공(臨邛)에 도착해 사업을 벌인 것과 비견된다. 조나라의 탁씨가 수레를 이용해 험한 산길을 지나 촉 땅으로 갔다면, 이천 여년이 지난 후 아산은 바지선을 이용해 험한 파도와 해일의 위험을 무릅쓰고 먼 중동으로 떠나갔던 것이다. 임공이 지나온 1177.6km의 산길은 서울 부산을 고속도로로 세 번을 왕복하는 거리였지만, 아산이 띄운 배들이 떠난 1만 2천km의 바닷길은 경부고속도로를 열다섯 번이나 왕복하는 거리였고, 또한 그 거리를 바지선을 타고 열아홉 번이나 건넌 것이다. 조나라의 탁씨가 험한 길을 무릅쓰고 진나라가 개척한 촉 땅에서 큰 부를 이루고 존경을 한 몸에 받았듯, 아산 역시 먼 이국 땅 중동으로 진출해 현대건설과 현대조선소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킴으로써 아랍의 여러 나라는 물론 세계에 ‘현대’와 ‘한국’을 각인시키는 존경받는 기업인이 된 것이다.

2) 부(富)를 나누는 베품(仁)의 정신

춘추시대 말기에 월(越)나라의 왕 구천(勾踐, 재위 BC 496~BC 465)을 도와 중국 동남 해안의 소국(小國)에 불과했던 월나라를 일약 중원의 패자(霸者)로 만든 범려(范蠡, BC 536~BC 448)라는 정치가가 있다. 그는 가난하고 미천한 집안에 태어났지만, 스스로의 능력으로 큰 부와 명예를 누렸을 뿐 아니라 자신이 몸담았던 월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다. 그의 삶은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스스로의 의지와 능력으로 현대와 한국의 눈부신 발전을 이루는 데 큰 기여를 한 아산 정주영의 삶을 연상시키는 바가 있다. 아산은 고된 노동에 비해 소득이 적은 농사일에서 벗어나기 위해 고향을 떠나 청운의 꿈을 품고 서울로 가서 마침내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가로 큰 성공을 이룬다. 범려는 원래 초(楚)나라 사람이었지만, 귀족 출신이 아니면 벼슬길에 오를 수 없었던 현실을 극복하고자 초나라를 떠나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월나라로 도망가 월나라를 대표하는 큰 정치가로 성공을 이루었다. 아산이 기업을 일구어 큰 성공을 이룬 후 정치에 진출하고자 한 반면, 범려는 정치에서 큰 활약을 보인 후 상업적으로 큰 부(富)

를 이루었다는 점에서, 두 사람은 서로 반대되는 경로를 따라 꿈을 펼쳤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공히 자신이 벌어들인 막대한 부를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과 나누고자 했다는 점에서 또한 커다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아래에 각자의 방식으로 부의 사회적 환원을 실천했던 두 사람의 삶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을 보이고 좀 더 자세한 논의를 펼치기로 한다. 먼저 범려의 이야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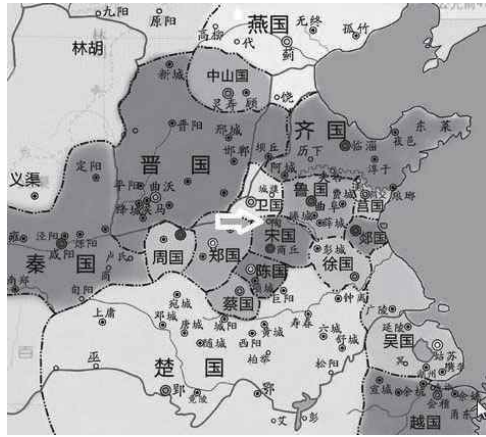
주공(朱公)은 도(陶)가 천하의 중심으로 사방의 제후국들과 통해 있어 물자의 교역이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생각하였다. 이에 생업에 종사하여 물건을 쌓아두고, 때에 맞추어 팔면서 사람들을 나무라지 않았다. 원래 생업을 잘 운영하는 사람은 사람을 잘 선택하고 때에 맞게 운영할 수 있는 법이다. 그는 19년간 세 차례에 걸쳐 천금의 재산을 모았는데, 두 번은 가난한 친구들과 먼 친척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것이 이른바 부유하면서도 덕을 즐겨 행한다는 것이다.¹⁰

윗글은 도주공(陶朱公)의 이야기이다. 그리고 이 도주공이 바로 범려다. 앞서 간단히 언급했지만, 범려는 월왕 구천을 도와 그를 춘추시대의 마지막 패자(霸者)로 만들어 천하를 호령할 수 있게 한 사람이다. 하지만 범려는 구천이 패자가 된 후, ‘교활한 토끼가 모두 잡히면 사냥개는 살아지는 법’(狡兔死, 走狗烹)이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고, 상장군(上將軍)이라는 최고의 직책을 버리고 월나라를 떠난다. 『사기』의 「화식열전」과 「월왕구천세가」에는 그 후의 범려의 삶이 짧막하게 전하는데, 그는 월나라를 부강하게 할 수 있었던 스승 계연(計然)의 계책을 이제 집안을 일으키는 데 써보고자 가족을 이끌고 제(齊)나라로 가서 치이자피(鴟夷子皮)라는 이름으로 농사를 지었고, 다시 당시 교역의 중심지인 송(宋)나라 도(陶: 현 山东省 定陶縣)라는 도시로 가서 상업으로 큰 부를 이루어¹¹ 현재까지도 ‘상인의 성인’[商聖]으로 불리운다.

¹⁰ “朱公以爲陶天下之中，諸侯四通，貨物所交易也。乃治產積居，與時逐而不責於人。故善治生者，能擇人而任時。十九年之中三致千金，再分散與貧交疏昆弟。此所謂富好行其德者也。”(『史記』, 「貨殖列傳」)

¹¹ “范蠡既雪會稽之恥，乃喟然而歎曰：‘計然之策七，越用其五而得意。既已施於國，吾欲用之家。’乃乘扁舟浮於江湖，變名易姓，適齊爲鴟夷子皮，之陶爲朱公。朱公以爲陶天下之中，諸侯四通，貨物所交易也。乃治產積居。”(『史記』, 「貨殖列傳」)

인용된 글은 범려가 왜 도(陶)라는 지역에 정착했는지와 생업을 통해 번 돈을 “가난한 친구들과 먼 친척들”에게 나누어 주어 “부유하면서도 덕을 즐겨 행한다”는 칭송을 받은 일을 서술하고 있는 대목이다. 도(陶)는 지도에서 보이듯 춘추시대 중국의 여러 나라에 둘러싸인 중심지역에 위치하여 사통팔달(四通八達)의 교역 도시로 일찍부터 상업이 발달한 곳이었다. 넓게 보면 진(秦)나라·진(晉)나라·제(齊)나라·초(楚)나라·오



〈그림 4〉 춘추시대 송(宋)나라 도(陶)의 위치

(吳)나라에 둘러싸여 있고, 가까이 위(衛)나라·노(魯)나라·정(鄭)나라·진(陳)나라·서(徐)나라와 인접해 있어 국가간 무역을 하기에 그 입지 조건이 최적이었다. 또한 원래 조(曹)나라의 수도였다가 춘추 말기에 송(宋)나라의 제2의 도시로 편입되었으니 정치·문화적인 인프라도 잘 갖추어진 전통적인 상업과 교통의 요충지였던 것이다.

범려는 월나라를 떠나 제나라로 이주해서는 해안의 간척지를 개발해 농사를 지어 큰 부를 이루었다. 그러자 제나라 사람이 그를 현명하다고 재상으로 추대하지만 이때도 그 특유의 ‘버리고 떠나기’와 ‘나눔의 윤리’를 실천한다. 그는 “천금을 벌고, 재상까지 이르렀으니 포의(布衣)의 신분으로 최고의 지위에 오른 것”에 만족하고 월나라에서 상장군이라는 자리를 버리고 바다를 건너 제나라로 훌쩍 떠나왔듯, 이번에는 재상의 자리를 버리고 가족과 함께 송나라 도(陶)라는 도시로 훌연히 이주해갔던 것이다.¹² 그리고 이 두 번의 버리고 떠나기를 실천하며, 그는 위 첫 번째 인용문의 하단에도 나와 있듯 가난한 시절 사귀었던 친구들과 먼 친척 및 이웃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 줌으로써 “부자이면서도 덕을 실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富好行其德者)이라는 칭송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¹² “范蠡浮海出齊，變姓名，自謂鴟夷子皮，耕於海畔，苦身戮力，父子治產。居無幾何，致產數十萬。齊人聞其賢，以為相。范蠡喟然嘆曰：‘居家則致千金，居官則至卿相，此布衣之極也。久受尊名，不祥。’乃歸相印，盡散其財，以分與知友鄉黨，而懷其重寶，開行以去，止於陶。”(『史記』，「越王句踐世家」)

아산 역시 가난한 삶에서 벗어나고자 고향을 떠나 서울로 이주해 큰 성공을 이룬 사람이다. 서울에 처음 와서 그는 막노동꾼, 쌀가게 점원, 자동차 수리공으로 일하면서도 그 특유의 성실함과 추진력으로 점차 사람들에게 인정과 신뢰를 받아 나중에는 돈을 벌리거나 동업을 하면서 자신의 가게와 공장을 경영하기 시작했다. 그가 술취하고 있듯 이 당시까지만 해도 그에게는 국가와 사회가 안중에 없었다. 잠시 그의 육성을 들어보자.

어려서 고향을 박차고 도회지로 나올 때는 ‘농촌에 묻혀 아버지 같은 일생을 살고 싶지는 않다. 적어도 아버지보다는 나은 삶이 도회지에 있을 것이다.’하는 막연한 꿈과 기대에, 아니 단순하게 말해버리면 ‘도회지에 나가 노동을 해서라도 돈 벌어 밥이나 실컷 먹고 살자.’라고 하는 현실적인 소망이 전부였다. 노동을 하면서, 쌀가게 주인이 되어서, 자동차 수리 공장을 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지는 않았다. 솔직히 말해 그때까지는 내 가족들, 내 직원들만 챙기면서 나 자신의 발전만을 생각하며 살았다.¹³

이랬던 그가 나이를 먹으면서 하는 일도 달라지고 생각의 테두리도 점점 커지면서 내 가족, 내 직원을 넘어 사회의 전체 구성원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갔던 것이다. 막노동꾼에서 국가 도로망과 국내외 기반 시설을 만드는 현대 건설 회장으로, 자동차 수리공에서 한국 최초의 고유 모델 포니를 생산하는 현대 자동차 사장으로, 더 나아가 현대 그룹 회장과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등을 역임하며 기업뿐 아니라 국가 전체를 총괄하는 경제인 대표가 되면서 그에 걸맞게 대사회적인 책임감도 커져갔던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이 ‘현대건설’의 이익금을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과 나누어 가져야겠다는 생각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졌던 것이다.

‘현대건설’의 사회 환원은 그런 외롭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돌리고 싶었다. 1977년 7월 1일, 나는 ‘현대건설’의 개인 주식 50%를 내놓아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설립을 발표했고, 매년 약 50억 원의 배당 이익금으로 사회

¹³ 정주영(1998), 105면.

복지 사업을 하도록 했다. …(중략)… 의료사업과 사회복지 지원 사업, 연구 개발 지원 사업, 장학 사업 등 4개 부분으로 사업 영역을 세웠다.¹⁴

윗글은 아산이 1977년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설립을 발표하게 된 개인적 동기를 스스로 설명한 부분이다. 당시 한국경제는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으로 1962년부터 1976년까지 연평균 8.5%~11%의 고도성장을 하고 있었고,¹⁵ 이에 따라 정부 정책에 호응하며 도로·항만·교량 등 사회간접자본 건설과 자동차·조선 등 공업 발전의 한 축을 담당했던 현대와 같은 기업들도 국가 경제의 발전과 함께 고속 성장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도시 중심의 산업 발전이 가속화될수록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는 더욱 심해졌고, 기업 및 경제가 성장할수록 빈부격차 등 사회모순이 격화되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1975년 정부는 ‘기업공개와 건전한 기업풍토의 조성’에 관한 대통령 특별지시(5·29조치) 등을 발표하면서 기업 공개를 중용했고, 여론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면서 기업 공개를 촉구했다.

하지만 아산은 기업공개를 통한 주식상장의 방식으로 일반 투자자들이 주식을 공개적으로 사고 팔수 있게 함으로써, 그 이익을 투자자와 함께 나누어 가지는 방식의 기업 이익의 사회적 분배나 환원을 선호하지 않았다. 그러한 방식은 단지 주식을 살 수 있는 여유 있는 사람들에게만 더 많은 이익을 보장할 뿐, 주식조차 살 수 없는 어려운 형편의 사람들에게는 실제로 아무런 혜택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이다. 아산이 생각하기에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사회적 환원도 아니었고, 산업화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도·농간의 격차와 빈부격차를 실제로 해소할 좋은 방법도 아니었다. 병이 들어도 병원에 갈 수 없고, 끼니를 잇기 어려울 정도로 가난한 사람, 배우고 싶어도 학비가 없어서 학업을 중단하는 수많은 청소년들을 위해 현대그룹의 이익을 나누어 주는 것이 그가 생각하는 올바른 방식의 기업 이익의 사회적 환원이었다. 인용문의 첫머리에 나와 있듯 ‘현대건설’의 사회 환원은 바로 그런 “외롭고 가난하

¹⁴ 정주영(1998), 240면.

¹⁵ 한국은 1962년부터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힘입어 외국자본의 적극적 도입을 통한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고도성장의 길에 올랐고, 정부의 경제개발 계획에 적극 호응한 몇몇 기업들도 국가 경제의 발전과 함께 고도성장을 하게 되었다. 경제개발 1차 계획년도(1962~66)의 연평균 성장률은 8.5%였고 2차 계획년도(1967~71)는 10.5%, 3차 계획년도(1972~76)에는 연평균 11%의 높은 성장률을 유지했다.

고 소외된 이들”에게 돌려져야 할 것이었다.

당시 어떤 기업보다도 수익율이 높았던 ‘현대건설’의 상황에 비추어볼 때, 기업 공개를 통한 주식 상장은 주식투자자들뿐만 아니라, 기업에도 막대한 이득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아산은 ‘소외된 자들을 위한 복지 추구’야말로 진정한 기업 이익의 사회적 환원이라는 자기만의 확고한 철학과 비전을 가지고, 약 500억원 상당의 ‘현대건설’ 개인 주식 절반을 내놓아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을 설립했던 것이다. 그리고 매년 약 50억 원의 배당 이익금을 농어촌 중심의 의료 사업과 저소득층 위주의 사회복지 사업 및 소외 집단 중심의 장학 사업 등에 투입함으로써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 구원의 손길을 뻗쳐 소외계층의 실제적인 복지향상에 기여했던 것이다.

경제기획원이 조사한 1977년 말의 전국 의료기관현황을 보면, 당시 종합병원은 전국의 51개소 중 시부(市部)에 49개소, 농촌지역은 2개소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의료혜택을 못 받는 농어촌 문제가 기사화되기도 하였다.¹⁶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자 아산은 1978·1979년에 재단 기금을 활용해 전라북도 정읍병원, 전라남도 보성병원, 강원도 인제병원, 충청남도 보령병원, 경상북도 영덕병원을 설립하도록 하여 도시와 농촌간의 의료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 특히 개원부터 1981년까지 초기 4년 동안 다섯 개 병원은 모두 적자를 기록해서¹⁷ 이 모든 적자는 아산사회복지재단에 의해 충당될 수밖에 없었다. 이윤을 추구하는 사적 기업이, 손해가 뻥히 날 줄 알면서도 읍면도 아닌 리 단위의 작은 지방에만 병원을 설립하여 오랜 기간 적자를 감수하고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은, 아산사회복지재단을 설립하여 다른 무엇보다 우선 소외된 농어촌 지역민들의 ‘질병과 빈곤의 악순환’을 끊고자 했던 아산의 적극적인 실천 의지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¹⁸ 예나 지금이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인구가 많고 교통이 발달한 도시 중심으로만 병원 설립이 편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산재단의 기금으로 설립된 지방병원들은 적자를 무릅쓰고 농어촌 지역의 의료복

¹⁶ 「醫療혜택 못받는 농어촌」, 『동아일보』 기사 2면, 1979년 2월 5일자.

¹⁷ 김태영(2015), ○○면.

¹⁸ 아산은 1977년 7월 1일의 아산사회복지재단 설립 발표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기고 있다. “인류에게 가장 큰 두 가지 고뇌가 질병과 빈곤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질병과 빈곤은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질병으로 인해 빈곤하고, 빈곤하기에 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병고와 가난으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을 돕는 것은 나의 오랜 소망이었습니다.”

지의 확대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다. 병원비를 낼 수 없는 이들에게 무료 진료와 무료 입원을 허가했을 뿐 아니라, 현재까지도 무료로 방문간호와 순회 진료 서비스를 꾸준히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활동은 ‘절세 수단’이나 ‘자금 유출 수단’으로 악용되어 사회의 지탄 대상이 되기도 하는 일부 재벌들의 기업 출연 재단 설립 및 활동에 비추어 보면, 하나의 모범적 귀감이 될 만한 사례라고 할 것이다.

또한, 아산재단이 펼치는 장학사업도 남다른 측면이 있다. 장학금이란 대개 성적 우수자에게 수여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지만, 아산재단의 장학금은 성적과 상관없이 저소득 근로자의 자녀나 스스로 일하면서 공부하는 근로 학생 및 고아원 출신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정한다는 원칙¹⁹아래 오래도록 시행되어 오고 있다. 아산은 비록 초등학교 밖에 나오지 못했지만, 노동자 합숙소 잠자리의 빈대를 통해서도 배우고, 어떤 사업이 실패한다고 해도 그 속에서 절실한 교훈을 얻는 등 언제나 모든 일로부터 배우고자 하는 자세로 인생을 살아왔다. 사회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학교 밖의 배움 속에서 큰 지혜를 터득한 아산에게 학교성적이란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없는 단순한 수치에 불과한 것이었을 터이다. 아산의 이런 경험을 반영하듯 아산재단의 장학금은 수치로 환산되는 학교 성적의 결과보다는, 배우고자 하는 의지는 있지만 가정형편상 공부를 지속하기 어려운 소외된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그림 5〉 『동아일보』, 「醫療혜택 못받는 농어촌」(1979년 2월 5일자, 제2면)

¹⁹ 김신(1999), 16면.

방식으로 진행되어왔던 것이다.²⁰

이 밖에도 아산사회복지재단은 “우리사회의 가장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는 재단 설립자의 설립이념에 따라 장애인·아동·노인·여성·저소득층·북한이탈주민·결혼이주여성·외국인 근로자 등 사회취약계층으로 분류될 수 있는 사람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매년 사업을 공모하고 있다. 아산사회복지재단 홈페이지(<http://www.asanfoundation.or.kr>)의 ‘사업소개-사회복지’란에는 재단이 매년 펼치고 있는 ‘지원 내용’과 1977년 재단 설립 후 2014년까지의 ‘지원 실적’이 아래와 같이 간략히 도표화 되어 있다.

지원 내용

지원분야	지원내용
공모사업	취약계층 자립 - 직업교육, 자립시설 개보수, 생산용 기자재 등 지원
	복지시설 종사자 역량강화 - 복지경영교육, 심리치료 및 상담기법 교육 등 지원
	독거노인 대상 노노케어 지원 - 독거노인에게 안부전화, 말벗 등 제공
SOS 복지시설 지원	화재, 자연재해 등 긴급하게 시설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 지원
기획사업	발달장애 지원
구호사업	북한 및 해외재난지원

지원 실적 (1977~2014년)

(단위 : 단체, 억원)

구분	계	장애인복지	아동복지	노인복지	여성복지	기타
단체수	4,124	1,095	789	308	717	1,215
금액	782	98	75	26	70	513

아동·노인·여성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이나 재해·재난 피해자 및 발달 장애를 겪고 있는 장애인까지, 그리고 그 범위를 북한 및 국경을 넘어 해외까지 거의 모든 지역의 사회적 소외 계층을 포괄하고자 하는 지원 내용도 대단하지만, 4,124

²⁰ 최재성(2015), ○○면 참조.

개나 되는 사회복지단체에 매년 꾸준히 적지 않은 자금을 지원해, 지금까지 총 782억원이나 되는 막대한 돈을 지출했다는 것은 아산재단의 복지 사업이 단순히 재벌 기업의 생색내기용 사업이 아님을 그 자체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아산은 일부 재벌들이 복지 재단이라는 유명무실한 간판을 내걸고 절세 수단으로 쓰거나, 다른 영리 추구를 위해 활용하는 것을 누구보다 싫어했다. 그런 까닭에 혹시라도 국민들이 ‘아산재단’도 그런 종류의 하나로 오해할까봐 재단 설립 발표와 함께 향후 5년 동안 할 사업을 공표했고, 앞서 살펴보았듯 ‘질병’과 ‘가난’의 악순환을 끊고자 의료 취약지구인 농어촌 지역에 적자를 무릅쓰고 대규모 기금을 투여해 종합병원을 설립하는 일부터 시작했던 것이다.

이처럼 아산은 ‘복지’란 개념도 희박했던 70년대 말 그 시절에 ‘사회복지재단’이라는 이름을 내 걸고 “우리사회의 가장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했다. 아산이 내세웠던 그 구체적 목표와 아산이 기꺼이 내놓았던 500억 원 상당의 ‘현대건설’ 개인 주식, 그리고 매년 약 50억 원의 배당 이익금을 재단에 기부하도록 제도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할 수 있었던 복지시스템을 보면, 초등학교 졸업 학력인 아산의 넓고도 깊은 선구자적인 해안에 절로 고개가 숙여지기도 한다.

춘추 시대의 도주공은 “물건을 쌓아두고, 때에 맞추어 팔아” 큰돈을 벌었다. 시세를 잘 읽고 예견해서 물건이 풍족해 가격이 쌀 때 대량으로 구입해서 창고에 쌓아두었다가, 다시 그 물건이 귀해져 가격이 오르면 때에 맞추어 팔아 큰 시세차익을 본 것이다. 아산은 이런 상업적 거래로 큰 재산을 벌지는 않았다. 그는 전후 복구의 국가 재건의 시기에 교량과 도로를 건설함으로써, 그리고 산업화시기에 자동차와 조선을 제조하면서 막대한 돈을 벌었다. 그와 현대기업은 이른바 산업화라는 시류(時流)에 잘 올라타서 고속 성장한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도주공의 시세차익이 그 자신에게 막대한 부를 가져오게 함과 동시에 물동량의 적절한 사회적 분배를 가져왔듯, 아산과 현대의 교량·도로·자동차·조선의 건설 및 제조 역시 아산 자신에게 큰 부를 축적하게 했을 뿐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전반적인 발전에 큰 기여를 한 것만은 분명하다.

또한 이제까지 살펴보았듯 두 사람은 자신이 번 돈을 기꺼이 사회에 환원할 줄 알았다. 도주공은 국경을 넘어 자신의 거주지를 옮길 때마다 그때까지 모아 놓았던 재산들을 가난한 벼들과 친지,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나누어 주었고, 아산 정주영은 현대건설을 통해 축적한 자신의 개인 주식 절반을 내놓아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을 설립함으로써

써 그의 사후에도 지속가능한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한 복지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다.

시세를 읽고 시류에 편승한 모든 이들이 도주공과 아산처럼 막대한 돈을 벌 수 없듯이, 큰 부를 축적한 모든 이들이 다 이들 두 사람처럼 자신의 재산을 흔쾌히 사회에 투척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세상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자신과 사회 모두에게 유익한 대처 방안을 마련할 줄 알았던 두 사람의 지혜와, 가난한 삶에서 출발했기에 성공과 성취의 결과물들을 다시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과 나눌 수 있었던 두 사람의 나눔의 삶은 이처럼 수 천 년의 세월을 넘어 교감하고 있는 것이다.

3) 사익(私益)을 넘은 보국(輔國)의 정신

『사기』에는 큰 부를 이룬 상인들의 전기인 「화식열전」 외에도 당대(當代)의 화폐 유통과 재정 및 경제 운영 전반을 다룬 「평준서(平準書)」라는 글이 있다. ‘평준(平準)’이라는 말은 국가가 ‘물가 수준을 고르게 유지하는 것’으로, 한(漢)나라 무제(武帝) 때에는 국가 재정을 담당하는 대농(大農)이라는 관직 아래에 평준령(平準令)을 두어 물가를 관장하고 조절하였다. 이 직책은 시중의 물건 값이 비싸면 나라의 창고를 열어 내다 팔고, 물건 값이 싸지면 사들여서 물가상승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그 임무다.²¹ 지금도 그렇지만 먼 옛날의 사마천도 국가 경제 운영에서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이 ‘물가 안정’임을 표명하기 위해, 국가 경제 전반을 다룬 편명(篇名)에 ‘평준’이라는 명칭을 부치지 않았을까 싶다.

여하튼 사마천은 국가 재정 및 경제 전반을 다룬 이 「평준서」에 한대(漢代)의 경제 상황을 설명하면서 자연스럽게 당시 국가 경제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들의 이야기를 함께 기록하고 있다. 특히 한 무제 때 상인출신으로 대농승(大農丞)이 되어 국가 재정을 담당했던 제(齊)땅의 염상(鹽商) 동곽함양(東郭咸陽)·남양(南陽)의 철상(鐵商) 공근(孔僅)·낙양(洛陽)의 상인(商人)으로 계산에 밝았던 상홍양(桑弘羊, 기원전 152~80) 등이 주관했던 물가조절정책[均輸法] 및 염철관(鹽鐵官)을 통한 소금과 철의 국가

²¹ “(漢武帝)元封元年 …(중략)… 置平準于京師, …(중략)… 大農之諸官, 盡籠天下之貨物, 貴即賣之, 賤則買之. 如此, 富商大賈無所牟大利, 則反本, 而萬物不得騰蹠. 故抑天下物, 名曰平準.”(『史記』, 「平準書」)

전매 제도 등이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위 세 사람과 출신 및 경제관은 다르지만, 사익을 넘어 국가의 평화로운 발전에 공헌하고자 했던 복식(卜式)이라는 인물이 「평준서」에 나오는데, 이 사람의 ‘자기희생적인 형제애’나 ‘민간 주도형 경제관념’, 그리고 무엇보다 ‘사익(私益)을 넘은 보국(輔國)의 정신’은 아산의 삶과 생각과도 상통하는 측면이 있어 주목된다. 여기서는 지면의 제약상 주로 보국정신을 중심으로 두 사람의 생애를 비교 고찰하고자 한다.

(가) 한(漢) 나라가 마침 서너 차례 장군을 파견하여 흉노들을 공격했는데, 복식(卜式)은 가산(家産)의 절반을 현관(縣官)에게 바쳐 변방을 지키는 것을 돕고 싶다는 편지를 올렸다. …(중략)… 복식이 말했다. “천자(天子)께서 흉노를 정벌하시니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자(賢者)들은 마땅히 변방에서 죽음으로써 충절을 지켜야하고, 재물이 있는 사람들은 마땅히 재물을 바쳐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흉노(匈奴)를 멸망시킬 수 있습니다.”²²

(나) 다음해 남월(南越)이 반란을 일으켰고 서강(西羌)이 변경을 침범하여 해를 입혔다. …(중략)… 제(齊) 땅의 상(相)인 복식은 천자에게 글을 올려 아뢰었다. “신이 듣기로는 폐하께 근심이 있다는 것은 신하의 치욕이라고 하였습니다. 현재 남월에서 반란이 일어났으니, 저희 부자(父子)가 제나라 사람 중 배를 잘 다루는 자들을 이끌고 전쟁터에 나아가 죽음을 무릅쓰고 싸우겠습니다.”²³

(다) 올림픽 조직위 부위원장으로 23회 LA올림픽 대회 참가와 86아시아 게임 준비, 성공적인 88올림픽 개최를 위해서 나는 최선을 다했다. …(중략)… 내가 태어나 살고 일하고,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내 나라를 위해서였다. 정부가, 사람이, 권력이, 마음에 들건 안 들건 조국은 언제나 우리들의

²² “漢方數使將擊匈奴，卜式上書，願輸家之半縣官助邊。…(중략)… 式曰：‘天子誅匈奴，愚以為賢者宜死節於邊，有財者宜輸委，如此而匈奴可滅也。’”(『史記』，「平準書」)

²³ “其明年，南越反，西羌侵邊為桀。…(중략)… 齊相卜式上書曰：‘臣聞主憂臣辱，南越反，臣原父子與齊習船者往死之。’”(『史記』，「平準書」)

것이며 우리 후손들의 것이다. 조국은 날마다 발전, 번영하면서 영원해야 한다.²⁴

(라) 통일은 우리가 다 같이 원하는 소원이지만 뜻과 같이 안 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정이 서로 통하는 길이 통일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동안 금강산 개발에 대해서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금강산은 온 세계의 어느 명산보다도 월등합니다. 이 사업은 민족의 사업이며, 금강산 개발로 평화를 사랑하고 풍요로운 사회를 사랑하는 전 세계인들에게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²⁵

윗글 (가)와 (나)는 하남군(河南郡) 사람으로 농업과 목양(牧養)으로 큰 부를 축적했던 복식(卜式)이 한(漢)나라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변방국인 흉노(匈奴)·남월(南越)·서강(西羌)과의 전쟁에서 한나라가 승리하길 기원하며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다)와 (라)는 강원도 통천의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부친이 소를 판 돈 70원을 가지고 가출했던 아산이 어느덧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인이 되어 한국과 세계인들의 평화를 위해 올림픽 유치와 금강산 개발을 주도하며 가졌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가)에서 토벌의 대상이 되고 있는 흉노족은 중앙아시아와 현재의 몽고지역에서 활동하던 유목민족으로 오래전부터 중국 땅을 침범해 양민을 학살하고 물건들을 약탈해 가서 진(秦)나라 때부터 이들을 막기 위해 만리장성을 쌓을 정도였다. 진한(秦漢) 교체 시기에 그 세력이 더욱 강성해져, 기원전 166년(前元 14) 한(漢)나라 문제(文帝) 때에는 국경을 넘어 숙관(蕭關: 현 寧夏固原 동남쪽)을 침입하여 백성들의 재산을 약탈하고 회중궁(回中宮)을 불태웠으며 흉노의 기병(騎兵)들이 감천(甘泉: 현 陝西省 咸阳市 淳化县 서북쪽)에 이르러 수도 장안(長安)을 위협할 정도였다. 그 이후로도 흉노족의 약탈은 계속되었기에 한 무제는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위청(衛靑, ?~BC106)과 곽거병(霍去病, BC140~BC117) 장군을 여러 차례 파견해 공격을 감행하여, 기원전 119년(元狩 4)에

²⁴ 정주영(1998), 291~292면.

²⁵ 정주영(1998), 336면.

는 흉노의 국경을 지키던 혼야왕(渾邪王)이 투항해 오는 전적을 올리기도 하였다.²⁶ 바로 이러한 흉노족과의 전란의 시기에 복식(卜式)은 인용문(가)의 모두에 보이듯 “가산(家產)의 절반을 현관(縣官)에게 바쳐” 변방을 지키는 것을 돕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또한 (나)에는 남월(南越)의 반란과 서강(西羌)의 침범으로 한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한 복식의 헌신적인 자세가 나온다. 남월은 지금의 광둥성(廣東省)·광서성(廣西省) 및 월남(越南) 북부 일대에 있었던 나라이고, 서강은 현재의 감숙성(甘肅省) 임하(臨夏) 서쪽과 칭해성(青海省) 동북(東北) 일대에 살던 티베트계 유목민들을 지칭한다. 『한서(漢書)』 「무제기(武帝紀)」에 따르면, 기원전 112년(元鼎 5) 4월에 남월(南越)의 재상 여가(呂嘉)가 반란을 일으켰고, 9월에는 서강(西羌)과 흉노(匈奴)가 연합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중국의 남단 해안 지방과 서쪽 고원지대에서 한꺼번에 한나라의 안녕과 평화를 해치는 큰 난리가 일어난 셈이다. 한 무제는 10월에 십만의 군사를 파견하여 먼저 서강(西羌)을 정벌하고 이어 남월(南越)을 정복하게 되지만, 다음해 봄이 되어서야 비로소 모든 난리를 평정하고 각각의 지역에 무도(武都) 등 네 개의 군(郡)과 남해(南海) 등 아홉 개 군을 설치하게 된다. 근 일 년여 동안 서남쪽 변방 민족들과 커다란 전쟁을 치른 후 비로소 평정을 찾은 것이다.

윗글 (가)(나) 하단에는 이러한 국가 전란의 시기에 “현자들은 마땅히 변방에서 죽음으로써 충절을 지”키고, “재물이 있는 사람들은 마땅히 재물을 바쳐”서 흉노를 멸망시킬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복식의 소신과, 남월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아들과 함께 “전쟁터에 나아가 죽음을 무릅쓰고 싸우겠”다는 복식의 목숨을 건 멸사봉공(滅私奉公)의 정신이 잘 드러나 있다. 당시 열후(列侯)에 봉해진 자들 중 종군(從軍)하여 서강이나 남월을 쳐부수겠다고 나서는 자가 아무도 없었는데,²⁷ 배움도 학식도 없는 일개

26 기원전 127년(武帝 元朔 2) 위청(衛靑)은 흉노가 점령하고 있던 하투(河套) 지구를 빼앗고 식방군(朔方郡)을 설치했으며, 기원전 121년(武帝 元狩 2) 괵거병(霍去病)은 봄·여름 두 차례에 걸쳐 흉노를 공격해 하서(河西) 지구를 제어하고 서역(西域)으로 통하는 길을 열었다. 또한 기원전 119년(元狩 4)에는 두 장군이 함께 흉노의 주력부대를 공격하여 붕괴시키니 혼야왕(渾邪王)이 투항해왔다. 기원전 118년(元狩 3)에는 빈민 70여 만 명이 관(關) 이서 및 식방(朔方) 이남 지역으로 이주해 왔다.

27 “列侯以百數，皆莫求從軍擊羌、越。”(『史記』, 「平準書」)

목양업자가 고생해서 벌어들인 재산의 절반을 변방을 지키는 데 쓰라고 흔쾌히 황제께 바치고자 했으니 한 무제가 그에게 벼슬을 내리려 했음은 당연한 보상이라고 할 것이다. 윗글 (가)의 중략 부분에는 사신(使臣)을 매개로 한 천자(天子)와 복식의 대화가 나오는데, 이를 잠깐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천자(天子)가 사신을 통해 복식에게 물었다.

“관리가 되고 싶으냐?”

복식이 말했다.

“신(臣)은 어려서부터 가축을 길러 벼슬살이에 익숙하지 않아 원치 않습니다.”

사신이 물었다.

“집에 혹시 원한이 있어서 호소하고 싶은 일이 있는가?”

복식이 말했다.

“신은 태어나서 남과 다투어 본 적이 없고, 마을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물을 빌려 주었으며 불량한 이들을 교화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저를 따르는데 제가 어찌 다른 사람의 원한을 사겠습니까? 호소할 일이 없습니다.”

사자(使者)가 말했다.

“정녕 그렇다면 그대는 무엇을 하려고 그러는가?”²⁸

당시에는 돈을 주고 관직을 사는 것이 그리 낯설지 않은 관행이어서 무제는 그에게 관리가 되고 싶은지를 물었지만, 그는 “벼슬살이가 익숙하지 않다”[不習仕宦]는 이유로 거절했고, 원한을 풀고 싶은가를 물어도 원한 살 일이 없다고 하면서 이러한 보상도 거절한 것이다. 아무런 보상도 원하지 않는 그에게 황제의 사신이 마지막으로 무엇을 원하는가를 물으니, 돌아온 대답이 바로 윗글 (가)의 하단에 보이는 복식의 말이다. 그는 관직과 같은 어떤 이익이나 대가를 바란 것이 아니라, 천자가 한나라의 평화 정착을 위해 변경지역에서 약탈을 일삼아온 흉노족과 전쟁을 벌이는 상황이라면, 마땅

²⁸ “天子使使問式：‘欲官乎?’ 式曰：‘臣少牧，不習仕宦，不願也.’ 使問曰：‘家豈有冤，欲言事乎?’ 式曰：‘臣生與人無分爭。式邑人貧者貸之，不善者教順之，所居人皆從式，式何故見冤於人! 無所欲言也.’ 使者曰：‘苟如此，子何欲而然?’”(『史記』，「平準書」)

히 재물을 바쳐 그 싸움을 돕는 것이 부유한 자들이 해야 할 의무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그의 말을 사실 그대로 믿는다면, 개인적인 이익이나 대가를 바라지 않는 나라 사랑이 그가 천자의 전쟁을 돕도록 이끈 동기인 것이다.

물론 결과적으로 보면 그는 이러한 일들이 계기가 되어 나중에 천자의 목장인 상림원(上林苑)에서 양을 기르게 되고, 현령(縣令)을 거쳐 관내후(矣內侯)가 된 후, 어사대부(御史大夫)에까지 오르게 되니, 사사로운 이익을 넘어선 그의 행위들의 순수성을 의심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일찍이 그가 성년이 된 아우에게 집안의 전 재산을 주고 떠나간 일이나, 그렇게 주고 간 전 재산을 탕진해버린 아우에게 다시 자신이 양치기로 번 돈을 나누어 준 것을 보면,²⁹ 돈에 집착하기 보다는 아우에게 끊임없이 베풀 줄 아는 덕을 갖춘 사람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가난한 이들에게 재물을 빌려주고 불량한 이들을 교화하여 마을 사람들이 모두 그를 따른 것을 보면, 그가 자신의 재산과 덕망으로 지역 사회 안에서도 존경 받는 인물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황제가 내린 낭관(郎官)이라는 관직을 마다하고 자신에게 익숙한 양치기를 선택한 것을 보면, 그가 지위나 관직에 연연했던 사람도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목양(牧羊)을 통해 큰 부를 축적한 목양사업의 달인이긴 했지만, 언제나 자신이 생각하는 더 큰 가치를 위해 자기가 벌어들인 재산을,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가족과 사회와 국가를 위해 사용할 줄 알았던 것이다.

아산의 삶 역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가의 태도와는 달리 때때로 이익 추구를 넘어서 사회와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가 적지 않았다. 앞 절에서 살펴 본 아산사회복지재단의 설립 및 적자를 무릅쓴 농어촌 지역 종합병원 설립 등도 그런 경우의 하나겠지만, 윗글 (다)·(라)에 인용한 88올림픽 개최를 위한 헌신적인 노력이나 남북통일을 위한 금강산 개발 사업은 그가 기업가로서의 이윤추구를 넘어 조국을 위해 온 정열을 바친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다)에는 올림픽 조직위 부위원장으로서 88올림픽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했던 아산의 생각이 잘 드러나 있다. 지금은 서울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우리나라가

²⁹ “卜式者，河南人也，以田畜為事。親死，式有少弟，弟壯，式脫身出分，獨取畜羊百餘，田宅財物盡予弟。式入山牧十餘歲，羊致千餘頭，買田宅。而其弟盡破其業，式輒復分予弟者數矣。”(『史記』, 『平準書』) 강조는 필자.

선진국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것을 누구나 인정하지만, 올림픽 유치를 위한 민간인 대표로 아산이 활동했던 당시를 되돌아보면, 서울 올림픽 유치반대 의견 역시 만만치 않았다. 유치를 해야 할 서울시에서조차 “올림픽 대회 개최시기까지 필요한 제반시설을 도저히 구비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치를 반대한다는 공문을 보낼 정도였고,³⁰ 당시 국무총리였던 남덕우씨는 경쟁상대인 일본을 이겨 유치할 가능성도 없고, 유치되어도 국가 경제가 파탄날 거라는 ‘올림픽 망국론’을 펼치고 있었다.³¹ 또한 한국은 북한의 테러 위험이 상존하는 분단국가의 이미지가 강했고, 특히 당시에는 1980년 5월의 광주민주화운동이 무력 진압되는 장면이 뉴스나 비디오로 세계에 알려졌기 때문에 대외적으로도 올림픽을 치를 국제적 신망을 얻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아산은 1981년 5월, 문교부로부터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는 통보와 함께 88서울올림픽 유치 민간추진위원장이라는 자리에 위촉된다. 통치자 전두환은, 전후(戰後) 한국의 경제 발전을 이끈 대표적 기업가이며 중동 지역 건설로 국제적으로도 널리 알려진 아산을 추진위원장으로 내세워 올림픽 유치 가능성을 높이고자 했던 것이다. 하지만 당시 무력으로 민주화 열기를 진압하고 국보위 위원장을 거쳐 대통령이 된 전두환은 1980년의 공포분위기 속에서 기업을 통폐합시키는 과정에서, 현대중공업 소유의 창원중공업과 현대양행의 군포 중장비 공장을 다른 기업에 넘기도록 강제했다. 이런 강압적 경제 정책을 시행했던 권력자 전두환을 아산은 매우 불편하고 부당하며 말이 안 통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다.³²

따라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가의 입장에서나 박정희와 달리 통치자 전두환에게는 시종 비판적인 입장을 가졌던 아산의 당시 심리상태를 고려하면, 어쩔 수 없이 유치위원장이라는 직무를 수행한다 하더라도, 굳이 전두환의 정권 기반을 공고하게 해 줄 올림픽 유치를 위해 그렇게까지 자발적이고 헌신적으로 노력해야 할 이유는 없었다. (다)의 중간에 보이는 “정부가, 사람이, 권력이, 마음에 들건 안 들건”이라는 표현 속에는 이처럼 불편하고 마음에 들지 않았던 당시 정부에 대한 아산의 심리가

³⁰ 『한국스포츠 이면사』(16), 『경향신문』 제9면, 1988년 1월 30일.

³¹ 정주영(1998), 270면.

³² 정주영(1998), 254~265면. 285~292면.

은연중에 표출되어 있다. 하지만 아산은 권력자와 정부에 대한 그런 개인적 불만을 넘어 올림픽이 선진국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디딤판이 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올림픽 유치 추진위원장직을 수락했다. 올림픽 유치 위원장이 된 후에는 반드시 유치한다는 각오로 정부 각료와 함께 회의를 주재하고, 전경련 회장으로서 동료 기업인들의 올림



〈그림 6〉 「88올림픽 서울서 연다」 『경향신문』 1면. 1981. 10. 1. 사진 왼편 중앙이 아산 정주영 회장

픽 유치 참여를 독려했을 뿐만 아니라, 독일 프랑크푸르트 ‘현대’ 지사의 인력들을 적극 활용하여,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52:27’이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나고야를 물리치고 올림픽 개최지로서의 ‘서울’을 바덴바덴의 하늘에 올려 퍼지게 했던 것이다.

아산은 올림픽 유치부터 준비까지의 과정을 회고하면서 “88올림픽 준비과정에서 나는 단 1원의 올림픽 관련 수익 사업도 하지 않았고, 단 1원의 올림픽 시설 공사도 하지 않았다.”³³고 힘주어 말하고 있다. 물론 올림픽을 통해 현대 및 우리의 대기업들은 기업이미지의 국제화와 고유 상표를 부각시킬 수 있는 거대한 홍보 효과를 누렸으니 이익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사실대로 말하면 오히려 올림픽을 통해 액수로 환산할 수 없는 커다란 이익을 누렸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산이 올림픽 유치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데다 현대는 그 업종상 건설특수를 누릴 수도 있었음을 감안하면, 올림픽 관련 그 어떤 수익 사업과 시설 공사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순전한 아산의 의지였을 것이다. 윗글 (다)에서 언급하고 있듯 아산은 기업을 넘어 “내가 태어나 살고 일하고,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내 나라를 위해서” 올림픽 유치를 위해 그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던 것이다. 바로 그랬기에 아산은 조국과 후손을 위해 올림픽 유치 전쟁에 참여한 자신의 순수한 의도가 혹여 현대그룹의 이권이나 눈앞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왜곡되는 것을 바라지 않았던 것일 터이다.

³³ 정주영(1998), 292면.

단언컨대, 이윤만을 추구하는 평범한 기업가로서 아산이 머물러 있었다면 서울올림픽 유치 및 개최를 위한 그의 열정적인 노력은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바텐바텐 현지에서 아침 7시부터 전략 회의를 소집하고, 명함뭉치를 들고 하루종일 IOC 위원들을 찾아다니며, 정성들여 만든 꽃바구니를 위원들의 방에 놓아두는 열정적이면서도 섬세한 그의 올림픽 유치를 위한 헌신이 없었다면 압도적인 표차로 서울이 개최지로 확정되는 기적적인 승리는 없었을 것이다.

끝으로 (리)에는 아산 생애의 가장 마지막 사업이었던 금강산 개발에 대한 그의 생각이 잘 피력되어 있다. 금강산 개발은 하나의 관광지 개발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아산은 금강산 개발을 통일로 가는 길을 만드는 사업으로 생각했다.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길이 통하고, 인간의 정이 서로 통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남한 사람들이 북한에 있는 금강산을 구경하러 가면 자연스럽게 분단을 넘는 길이 생기고, 관광하는 과정에서 서로 만나 점차 익숙해지고 정이 싹틀 테니 이해의 폭이 넓어질수록 그만큼 통일의 길은 가까워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 세계적인 명산을 개발하는 것은 아산에게 단순한 관광개발을 넘어 곧 “민족의 사업”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금강산 개발로 인해 전 세계의 유일한 분단국가인 남북이 정말로 통일에 한층 더 가까워진다면, 그것은 곧 “평화를 사랑하고 풍요로운 사회를 사랑하는” “전 세계인들에게 크게 이바지”하는 ‘세계평화의 길’이라는 게 금강산 개발에 임하는 아산의 생각이었다.

남북이 사업 합작을 통한 경제적 교류를 활성화시켜 하나의 경제권을 이룰 때 통일이 앞당겨진다는 아산의 생각은 이미 1980년대 초반부터 보인다.³⁴ 하지만 이러한 생각이 현실 속에 구체화된 시기는, 노태우 정부가 공산권과의 개방적 교류를 표방한 북방외교 정책을 펼치고, 88올림픽 이후 소련 및 동구권 공산국가와의 교류가 실제적으로 트이기 시작한 1980년대 말부터였다. 남북동포간의 상호교류와 남북간 교역을 천명한 1988년 7·7선언에 힘입어, 아산은 1989년 1월 23일 민간인 기업가로는 최초로 공개적인 북한 방문길에 올라 금강산 공동개발 의정서 등 북한과 3개항을 합의하고 귀국한다.³⁵ 원래 이 계획은 그 해 4월 20일경 금강산 공동개발 문제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판문점

³⁴ 정주영(1983), 390~392면.

³⁵ 「금강산 개발 조사단 4월 방북」, 『동아일보』 1면, 1989년 2월 2일.

을 넘어 북한을 다시 방문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비공개적인 정부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민간인 재벌 기업가가 주도하는 남북경협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점점 커져가면서 계획 자체가 불투명해져갔다.³⁶ 그리고 그 해 3월 25일에는 문익환(文益煥) 목사가 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평양을 비밀 방문



〈그림 7〉 1998년 6월, 고 정주영 현대 명예회장이 소 500마리를 이끌고 방북하는 모습

하는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민간인 차원의 남북 교류를 허용했던 청와대 역시 정부의 사전 허가 없는 민간인 방북에 대한 엄단을 표명하면서, 민간인 교류가 전체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결국 아산의 두번째 방북은 허가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어 무기한 연기될 수밖에 없었다.³⁷

아산은 이처럼 북한과 합의한 금강산 개발 등 경제 협력이 완전히 가로막히게 되자, 1992년 ‘경제대국’과 ‘통일한국’을 실현한다는 명분으로 대선에 출마하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고 낙선한다. 삼당합당을 통해 당선된 김영삼 정부는 정치적 민주화 세력과 함께 ‘반공 냉전주의적 북한관’을 지닌 강경한 보수세력을 또 하나의 지지층으로 하여

36 아산의 북한 방문은 일을 추진하는 비공식 라인과 일을 책임지는 공식라인의 불일치를 가져오는 밀실 외교의 문제점과 국가 보안법의 개선 없는 민간 교류의 불법성 등이 문제 되었다. 또한, 독자적이고 급진적인 남북교류에 대한 미국의 견제, 정경분리적 경제교류에 관한 남북한 정부 내의 견해 차이 등으로 인해 금강산 개발을 골자로 한 아산의 귀국보고 후 채 한 달이 못 가 초기의 환영 열기가 식고 비판적 의견이 점점 비등해졌다. 관련 기사로는 다음을 참조. 「남북한교류 법적용 모순 많다」, 『한겨레』 5면, 1989년 2월 4일; 「비밀외교 위험한 발상」, 『동아일보』 2면, 1989년 2월 9일; 「남북한합작사업 정경분리 어렵다 조부총리」, 『동아일보』 6면, 1989년 2월 11일; 「야권, '남북교류법안'에 일단 제동」, 『한겨레』 3면, 1989년 2월 14일; 「제동 걸린 북방열기」, 『동아일보』 3면, 1989년 2월 21일; 「북방 열기 급랭 청와장 2차 방북에 압운」, 『매일경제』 6면, 1989년 3월 23일.

37 「문익환 목사 돌연 평양에 정치권에 큰 파문」, 『동아일보』 1면, 1989년 3월 27일; 「문목사 발언 사사건건 문제삼아」, 『한겨레』 10면, 1989년 3월 29일; 「문목사 평양 성명은 보안법 저촉」, 『경향신문』 11면, 1989년 3월 29일; 「문익환씨 방북처벌 형평원칙에 안맞다」, 『동아일보』 15면, 1989년 3월 29일; 「공안관계법 개정 전면 재검토」, 『한겨레』 1면, 1989년 3월 30일; 「북한과 인적·물적 교류 잠정 유보」, 『한겨레』 1면, 1989년 4월 2일; 「남북접촉 궤도 수정신호」, 『동아일보』 3면, 1989년 4월 11일 참조.

탄생했던 까닭에 일관된 정책을 실시하지 못하고 보수와 진보의 대북정책사이에서 표류하다 결국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한다.³⁸ 1998년 2월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후 대북포용정책인 ‘햇볕정책’이 실시되자 비로소 아산은 그 해 6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도합 1,001마리의 소떼를 끌고 판문점을 넘어 북한을 방문함으로써 그 자신이 염원했던 “군사분계선을 통과”하는 민간 교류의 길을 열 수 있었다. 1차 방북에서 아산은 북측과 금강산 관광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데 합의했고, 2차 방북 직후인 1998년 11월 18일에는 마침내 ‘금강호’가 첫 출항을 함으로써 역사적인 금강산 관광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

‘20세기 최후의 전위예술’이자 ‘세계 최초의 민간 황소 외교’로 세계인들의 극찬을 받은 소떼 방북에 대해서 아산은 참으로 소박하게도 다음과 같은 말을 남기고 있다.

강원도 통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청운의 꿈을 안고 세 번째 가출을 할 때 아버님이 소를 판 돈 70원을 가지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 후 긴 세월동안 저는 묵묵히 일 잘하고 참을성 있는 소를 성실과 부지런함의 상징으로 삼고 인생을 걸어왔습니다. 이제 그 한 마리의 소가 천마리 소가 되어 그 빛을 갚으려 꿈에 그리던 고향산천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저의 이번 방문이 단지 한 개인의 고향방문이 아니라 부디 남북간의 화해와 평화를 이루는 환경의 초석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³⁹

가난한 농부의 삶에서 벗어나고자 아버지가 소를 판 돈 70원을 가지고 가출했던 십대의 청년이, 소처럼 부지런히 일해 자수성가하여 팔십이 훌쩍 넘은 나이에 소떼를 이끌고 빛 갚으려 고향에 가는 것, 이는 다른 기업가들과는 달리 애뜻한 마음으로 남북 경제 교류를 열망했던 아산의 속 깊은 마음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가난한 아버지에게 빛을 되갚는 마음으로, 아산은 고향 통천과 금강산 일대를 개발하고 싶었고, 세계의 자본을 끌어 모아 가난한 북한의 경제를 활성화시켜 “남북간의 화해와 평화를 이루는” 초석이 되고자 하였던 것이다.

³⁸ 박태균(2014), 3~47면 참조.

³⁹ 「정주영씨 일문일답」, 『조선일보』 1998년 6월 17일자

물론 최근의 일련의 연구처럼 아산의 남북경협을 기업의 실리와 민족사적 명분을 조화시킨 사례로 접근할 수도 있을 것이다.⁴⁰ 또한 1980년대 이후 아산의 언술을 되돌아보면, 현대그룹의 주력 업종인 건설업과 조선업이 세계적 불황속에서 성장 동력을 잃어가는 시점에서 소련 등 공산권 국가와의 경제 협력 방안인 북방경제권 구상과 연동하여 남북경협이 모색된 측면이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하지만, 북한과의 경제 협력은 투자가 이익으로 현실화되기까지 그 기간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분단 상황에서 남북간의 정치·군사적 갈등이 벌어지면 언제든지 중단되어 기업에 막대한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지극히 불안정한 사업이다. 실제로 정국의 변동 상황에 따라 1989년에 약속했던 금강산 개발은 십년이나 지난 뒤인 1998년에야 재개될 수 있었다. 이후 금강산 관광 사업 및 대북 경제 협력을 위해 1999년 2월에 설립된 현대아산은 관광시설 건축 및 개발을 위해 2006년까지 총 2800여 억원을 투자했지만, 2000년 이후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⁴¹ 다행히 관광객 수는 꾸준히 증가해서 2005년에 누적 관광객이 100만명을 넘어섰지만, 2008년 박왕자씨 피격 사건으로 지금까지도 금강산 관광은 중단되고 있다. 이로 인해 현대아산은 2008년 7월부터 2015년 3월까지의 관광 매출 손실액이 약 8400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⁴² 기업 이익의 측면만을 따져 보면, 사실 적자투성이인 금강산 관광 사업은 중단되는 것이 맞다.

정국(政局) 상황에 따라 금강산 공동개발 의정서가 순식간에 쓸모없는 휴지 조각이 되어 버리는 것을 경험한 아산이 금강산 관광 사업이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라 지극히 유동적이고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것을 몰랐을 리는 없다. 또한 건설로 잔뼈가 굵은 그가 금강산 개발을 위한 초기 비용이 관광 수익을 훨씬 더 상회할 것이라는 것도 충분히 예측했을 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강산 관광과 대북 경제협력 사업을 위해 마지막 생애를 불태웠던 것은 기업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가로서의 실리적 동기를 넘어 그보다 더욱 강렬한 어떤 특별한 동기와 더 큰 가치를 상정하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어렵다. 그것은 바로 아산 스스로 말하고 있듯 금강산 기슭의 통천이라는 곳에서

40 정태현(2013); 정태현(2015); 예대열(2013) 참조.

41 「현대아산 금강산 관광산업의 대차대조표」, 『월간조선』 2006년 12월호에 따르면, 구체적인 적자액은 1287억원(2000년), 511억원(2001년), 87억원(2002년), 63억원(2003년), 750억원(2004년), 142억원(2005년)이다.

42 하유미, 「금강산관광 중단 7년...올 6월 현대아산 손실액 1조 넘는다」, 『이투데이』 2015년 4월 15일.

가난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난 그가 오래된 “빛을 갚으러 꿈에 그리던 고향산천을 찾아가는” 내면 깊숙한 부채의식과 회귀본능에서 비롯된 것일 터이다. 그런데, 이미 한국가를 대표하는 기업가로 성장한 그에게 이러한 개인적인 고향으로의 회귀는 단지 한 개인의 고향방문에 그칠 수가 없다. 그는 자신이 오랜 동안 간직해온 부친에 대한 사랑과 부채의식을 고향 산천인 금강산을 개발하고 남북간의 경제를 아울러 발전시키며, 더 나아가서는 그가 희망한 대로 “남북간의 화해와 평화를 이루”어 ‘통일을 이루는’ “환경의 초석”이 되는 방식으로 해소하고자 했던 것이다.

금강산 관광이 시작된 지 2년이 조금 지난 2001년 3월 21일, 87세의 나이로 아산은 세상을 하직한다. 남북경제협력을 통한 통일 기반을 조성하는 역사적 임무는, 아산이 소떼몰이 방북을 할 때 아버지를 도와 남북간의 실무적 협상을 총괄했던 다섯번째 아들 정몽헌에게 계승된다. 그는 현대아산 회장을 맡아 금강산 관광 및 대북사업을 총괄하여 2003년 6월 개성 공단을 착공하는 데까지 이르지만, 그 해 8월 대북 송금 사건 관련 조사를 받던 중 현대 사옥에서 투신자살한다. 그가 유서에 남긴 말은 “명예회장님께서 원했던 대로 모든 대북 사업을 강력히 추진하기 바랍니다.” “나의 유분을 금강산에 뿌려주기 바랍니다”였다.⁴³

이천 여년 전 한나라의 복식은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흉노와의 전쟁 때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기꺼이 전 재산의 반을 조정에 헌납하고자 하였다. 아산은 조국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앞당기는 올림픽 유치와 개최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면서 단 1원의 올림픽 시설 공사도 현대건설이 담당하지 않도록 했다. 모두 자기 자신이 나 기업의 이익에서 초연하고자 한 것이다. 한 무제가 남월과의 전쟁을 치를 때 복식은 아들과 함께 “전쟁터에 나아가 죽음을 무릅쓰고 싸우”고자 했다. 아산은 금강산 개발 및 남북경제협력사업에 아들 정몽헌을 동반하여 협상의 실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아산도 그의 아들 몽헌도 남북경협사업에 생의 마지막 투혼을 발휘하다 세상을 하직했다. 복식도 아산도 그들의 아들들도 자신의 업을 통해 큰 돈을 벌었지만, 국가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신의 재산을 바치고,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다는 각오로 헌신했던 것이다. 모든 인간은 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지만, 자기의 몸과 마음과

⁴³ 「정몽헌 회장 유서 내용」, 『연합뉴스』, 2003년 8월 4일.

생각이 타인과 사회와 국가를 담을 만큼 커지는 순간, 자신을 위해 사는 삶은 곧 타인과 국가를 위해 사는 삶이 될 수도 있는 법이다.

4. 아산 정신의 동아시아적 전통과 미래 전망

필자는 이제까지 동아시아 상인 정신과 아산의 기업가 정신을 연결시키면서 익숙한 유교와의 관련을 잠시 미루어 두고, 동아시아 상인 정신의 원형을 살펴볼 수 있는 『사기』 「화식열전」과 「평준서」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과 아산의 삶과 정신을 비교 고찰하였다. 아산의 삶과 정신을 유교가 아닌 「화식열전」 속 상인의 삶과 연결시키는 이러한 시도는 아마도 필자가 최초이지 않을까 싶다. 사실 아산과 유학을 연결시키는 것은 아산의 다음과 같은 진술을 통해 일정한 매개고리를 확보할 수 있다.

소학교에 들어가기 전 3년 동안 할아버지의 서당에서 『천자문』으로 시작해서 『동몽선습』, 『소학』, 『대학』, 『맹자』, 『논어』를 배우고 무제시, 연주시, 당시도 배웠다. 열심히 암기하고 뜻을 읽혀 조부님이자 훈장님이셨던 어른 앞에서 달달달 외워 보여드렸던 것은 공부가 재미있어서도 뜻을 이해해서도 아니고, 그저 회초리로 사정없이 종아리를 맞아야 하는 매가 무서웠기 때문이었다.⁴⁴

아산의 기업가 정신과 유학과의 관련을 연결시키는 대부분의 연구는 이 대목에 근거해서 아산의 삶이 유교적 바탕 하에 있음을 간단히 논증하고 있다. 또한 때때로 아산은 자신의 경험을 술회하며 다음과 같이 유학 경전의 한 구절을 인용하기도 한다.

『대학』에 ‘치지재격물(致知在格物)’이라는 말이 있다. ‘사람이 지식으로 올바른 삶에 이르자면, 사물에 직접 부딪혀 그 속에 있는 가치를 배워야

⁴⁴ 정주영(1998), 23면.

한다’는 뜻이다. 참다운 지식은 직접 부딪쳐 체험으로 얻는 것이며, 그래야만 가치를 제대로 아는 법이다.⁴⁵

이런 말들을 보면 아산의 삶과 생각을 유교적 전통에서 찾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귀결처럼 느껴진다. 어렸을 적 매를 맞는 게 무서워서 조부 밑에서 뜻도 모르고 달달달 외웠던 구절들이지만, 그의 삶에서 배어나오는 대가족을 이끈 장자로서의 책임감이나 형제간의 우애와 부모님을 생각하는 애뜻한 마음과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태도 등은 분명 어렸을 적 암송했던 전통 유교의 오륜적 정신들이 어느새 삶 속에 체화되어 나오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 스스로도 어릴 적 배운 한문 글귀의 진정한 의미를 자라면서 깨달았다고 말하고 있거니와, 위에 인용한 『대학』의 ‘치지재격물(致知在格物)’에 대한 그 자신의 공감이 바로 그러한 예일 터이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어렸을 적 독서체험을 근거로 그의 삶과 생각을 유교적 전통에만 국한시켜 살펴보는 것은, 오히려 아산의 삶과 생각을 실제보다 협소하게 조망하게 되는 또 다른 잘못을 범할 수도 있다. 그는 책에서 배우기보다는 삶 속에서 더 많은 것을 터득했고, 학교 교육이 아닌 공사현장에서 더 열심히 생각하고 궁리하여 순간순간 자신에게 부딪힌 문제들을 해결해 나갔기 때문이다. 윗글에서도 그는 “참다운 지식이란 직접 부딪쳐 체험으로 얻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하고 있거니와 ‘불도저’라는 자신의 별명에 대해서도 “못 배운 사람이 무슨 일에든 덮어 놓고 덩벼”드는 식의 추진력으로만 해석되는 것을 거부하고, 어떤 일에 부딪쳐서 더 많은 앎과 지혜들을 터득해 나갔던 자신의 경험을 강조하며 자신이 ‘생각하는 불도저’였음을 강조하고 있다.

내가 학식이 없는 사람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학식이 없다고 해서 생각도 머리도 지혜도 없는 것은 아니다. 한 인간이 가진 자질과 능력에 대한 평가를 학교에서 배운 학식의 부피나 깊이만으로 내린다는 것은 크나큰 오류이다. …(중략)… 나는 내 ‘불도저’에 생각하고 계산하고 예측하는, 성능이 그다지 나쁘지 않은 머리라는 것을 달고 남보다 훨씬 더 많이, 더 열심히 생각하고, 궁리하고, 노력하면서 밀어붙였다.(233면)

⁴⁵ 정주영(1998), 158면.

필자가 「화식열전」 속의 상인들의 삶과 아산 정주영의 삶을 비교하고자 했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앞 장에서 살펴보았듯 축지방의 탁씨는 그 집안이 대장간을 했었고, 범려는 초나라의 가난하고 미천한 집안에서 태어났으며 복식은 하남군에서 농사와 양치기를 했던 집안의 출신이었다. 아산처럼 모두들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 농업과 수공업 혹은 상업에 종사하며 변변한 학교 교육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두 삶과 생활 속에서 터득한 지혜로 큰 부를 축적하고 자신이 이주하거나 정착한 그 지역과 그 나라에서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다.

불우한 자신의 조건을 딛고 자수성가한 이들 중에는,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가는 위기의 순간에도 생업인 대장간업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입지를 택해 오히려 이국땅에서 더 큰 부자가 된 탁씨 같은 경우도 있었고, 정확한 상황 판단력과 물러설 줄 아는 지혜로 가는 곳마다 큰 성취를 이루었음에도, 새로운 삶을 개척할 때마다 기존에 축적했던 막대한 재산들을 소외된 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새로 출발했던 범려같은 이도 있었다. 그리고 양치기로 번 돈을 아우를 위해 기꺼이 나누어 주고, 국가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재산을 헌납하고 목숨까지 다 바치려 했던 복식과 같은 이도 있었다. 이들은 모두 학교나 책을 통해서 배우기보다는 자신의 삶 속에서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거나, 자신이 부딪힌 일 속에서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더 큰 지혜를 터득했던 사람들이다.

물론 아산이 『사기』의 「화식열전」을 읽었다는 기록도 없고 이들의 존재를 언급한 적도 없다. 하지만 아산의 삶의 조건과 방식은 『논어』·『맹자』·『대학』 등에서 이상적인 인간으로 생각하는 군자로 대표되는 학자적 지식인의 삶보다는 오히려 노동하고 장사하는 백성들의 삶과 더욱 유사하다. 이들은 모두 고단하고 미천한 삶으로부터 출발했지만, 그러한 불리한 조건을 불굴의 의지와 삶 속에서 터득한 지혜로 극복하며 큰 부를 이루고 그것을 사회와 국가를 위해 사용할 줄 알았다는 점에서, 『사기』 속의 이 미천하지만 위대한 백성들은 아산의 삶과 생각의 방식을 공유한다고 할 수 있다. 이 글 서론의 첫머리에 살펴보았듯 아산은 “유교 사상이 근본 바탕을 이루고 있는 우리나라”가 “청빈낙도를 가치있는 삶으로 생각하여” 예로부터 군자를 존경하고 “상인을 천시하는 경향이 아주 강했”음을 애석하게 여겼다. 그리고 사농공상의 유교적 전통이 지금까지도 남아 있어 이윤을 추구하고 부를 축적하고자 하는 아산과 같은 기업가들을 마뜩찮게

보는 시각이 있음을 매우 유감스러워했다.

이로 보면 아산은 오히려 사농공상의 가치 체계 속에서 상인을 천시하는 유교 사상의 전통에서 우리 사회가 하루 빨리 벗어나길 바랐다고 할 수 있다. 청빈함을 높이 평가하는 전통이 검소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아산 역시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지만, 만약 그것이 가난한 삶을 그저 운명으로 알고 받아들이는 것이라면 아산은 그런 삶을 원하지 않았다. 농부인 부모님의 삶을 통해 아산은 가난한 농부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뼈저리게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고된 노동에 비해 소득이 너무 적은” 농사일에서 벗어나고자 도시로 여러 차례 가출했던 것이다. 『사기』 「화식열전」에는 “가난한 사람이 부유하고자 하면 농업보다는 공업이 낫고, 공업보다는 상업이 낫다”(夫用貧求富, 農不如工, 工不如商)는 말이 있거니와, 그는 자신의 체험적 삶 속에서 그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 농사에 들이는 노력만큼이면 농사보다는 소득이 나올 것 같아”서 서울로 올라서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하거나 쌀가게 점원을 하다가 비로소가게를 얻어 쌀장사를 하고, 더 큰 소득을 얻기 위해 자기 회사를 차리고 건설업에 뛰어들기도 한 것이다. 그의 삶은 부를 추구하는 것을 하나의 본능으로 생각하는⁴⁶ 「화식열전」의 생각과 닮았지, 가난함을 즐겁게 받아들이고 안빈낙도하는 군자의 삶을 이상적으로 여기는 유교 사상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화식열전」에는 또한 “늙은 아버지와 연약한 처자식이 있는데도 때마다 조상들께 제사 지낼 수도 없고, 먹을 것과 옷가지를 스스로 조달할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한데도 부끄러워 할 줄 모르는” 이들을 “어디에 비할 바가 없다”고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거니와⁴⁷ “오랫동안 빈천한 지위에 처해 있으면서도 말로만 인의(仁義)를 운운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長貧賤, 好語仁義, 亦足羞也)이라고 일갈하고 있다. 이는 유교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안빈낙도하는 군자의 삶”에 대한 냉소적인 부정이다. 「화식열전」에서 제시하는 현실적이고도 실현가능한 이상적인 삶은 “창고가 꽉 차야 예절을 알고, 옷과 음식이 넉넉해야 영욕(榮辱)을 안다”(倉廩實而知禮節, 衣食足而知榮辱)는 말 속에 가장 적절히 표현되어 있다. 사마천은 제(齊)나라의 부강함을 말하는 대목에서 관자(管子)의 이 말을 인용하고 있거니와 “예의라는 것은 재산이 있으면 생기고, 없으면 사라지는

46 “富者, 人之情性, 所不學而俱欲者也”(『사기』, 「화식열전」)

47 “若至家貧親老, 妻子軟弱, 歲時無以祭祀進饌, 飲食被服不足以自通, 如此不慙恥, 則無所比矣.”(『사기』, 「화식열전」)

것”(禮生於有而廢於無)이라는 생각을 피력하고 있다. 스스로가 가난에서 벗어나려 몸부림쳤고, 내 가족과 내 직원들이 부유해질 수 있게 되자 비로소 사회 복지를 생각하고 부강한 통일 조국을 바랬던 아산의 삶은, 바로 ‘스스로 넉넉해진 다음에야 비로소 인간의 더 큰 도리를 안다’는 관자의 생각과 상통하는 것이다. 예나 지금이나 보통의 인간은 자신의 의식주가 먼저 해결되어야 사회나 국가를 위한 더 큰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법이다.

「화식열전」이 성공한 상인들과 부자들의 삶을 선양하고자 했던 것도 최소한 그들이 가난하고 미천한 삶을 운명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더 나은 생활을 위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고, 더 나아가 그 중 어떤 이들은 자신의 부유한 삶을 최종적인 목표로 삼지 않고, 자신이 축적한 부와 지위를 사회와 국가를 위해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아산은 상인을 천시하는 유교적 전통이 오늘날 우리 기업가를 멸시하는 태도를 낳았고, 그래서 젊은이들이 존경하는 기업가는 모두 “우리나라 기업가가 아니라 미국의 기업가”인 작금의 현상을 못내 아쉬워했다. 하지만, 전통에 대한 시야를 조금만 넓히면 우리 안에는 상인을 천시한 동양적 유교적 전통만이 흐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오랜 세월 이전부터 스스로의 노력과 지혜로 가난을 극복하여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또한 자신들의 부를 사회와 국가를 위해 기꺼이 쓰려고 했던 훌륭한 상인들의 전통도 있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전통을 발견하고 그러한 모범적 상인의 전통 속에서 현재의 우리 기업가들을 재평가 하고, 더 나아가 새로운 미래의 기업가상을 모색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서구 중심적인 사고와 자기 편하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더 나은 기업가의 전형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더욱 희망찬 미래를 전망하기 위해서라도, 우리에게 더욱 요청되는 것은 바로 유가적 이념 속에서는 폄하되거나 소외되어 왔던 새로운 모범적 상인의 전통을 재발견하는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아산 정신의 전통과의 관련을 유교 경전이 아닌 동아시아 상인 정신의 원형을 담고 있는 『사기』의 「화식열전」·「평준서」 속에서 새롭게 발견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사기』 속 인물의 삶이 보여주는 특징적인 면모를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불굴의 정신”·“부(富)를 나누는 베품(仁)의 정신”·“사익(私益)을 넘은 보국(輔國)의 정신”으로 요약할 수 있었다. 분석과정에서 이 모든 동아시아 상인의 전통이 아산의 삶과 정신 속에 더욱 확대되고 심화된 형태로 발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도전과 창조의 기업가 정신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지금,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는 지금, 동아시아 상인의 전통 속에서 도출한 이 세 정신은 비록 과거의 인물로부터 추출해 낸 것이긴 하지만 더 나은 현재와 더욱 밝은 미래의 전망을 위해서 우리 기업가들에게 긴급하고 절실히 요청되는 것들이라 하겠다.

5. 결론

본고는 아산 연구에서 한번도 시도되지 않았던 동아시아 상인의 전통 속에서 아산정신을 재조명하고 그 의의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개척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동아시아 각국의 경제 성장 및 자본주의적 발전의 정신사적 맥락을 대체로 유교 사상에서 기인하는 것으로만 보아 왔다. 하지만, 근감·절약·근면한 기업가들의 태도가 서구 기독교의 금욕적 프로테스탄트니즘과 연관되어 있는 것만은 아니듯, 동아시아의 유교 정신에서만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동아시아의 고전 중에서는 유가경전인 『논어』·『맹자』·『대학』·『중용』 보다 『관자』 및 본고에서 검토한 「화식열전」·「평준서」와 같은 텍스트 속에 현재의 기업가 정신과 연관지을 수 있는 다양한 경제 사상 및 상인·경제인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까지 동아시아 경제 발전의 사상적 연원을 너무 단선적인 구도에서 고정화 시키고 유교 안에서만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았나 싶다. 유가 윤리는 기본적으로 지식인과 농민을 우위에 두는 사농공상(士農工商)의 서열적 가치 체계를 유지하며 오랫동안 상공인들을 천시하거나 멸시해 왔다. 반면, 사마천은 「화식열전」에서 농·공·상인과 광업 및 임수산업 종사자 등 모든 생산자들의 활동이 국부(國富)의 원천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보아 이들 각각의 역할을 똑같이 중요한 것으로 생각했다. 사마천은 이러한 평등주의적 인간관 속에서 당시까지 어떤 문헌에도 기록되지 않았던 성공한 상인들의 삶을 짚막하지만 핵심적인 필치로 요약하여, 미천한 신분으로 태어났지만 자신의 능력으로 부유하게 된 사람들의 삶을 후세에까지 널리 알리고자 하였다.

본고는 사마천이 「화식열전」과 「평준서」에 소개한 여러 인물 중 아산의 삶과 견주어 볼만한 ‘탁씨’·‘범려’·‘복식’을 택하여 그들 각각의 삶과 아산의 삶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태도를,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불굴의 정신’·‘부(富)를 나누는 베품(仁)의 정신’·‘사익(私益)을 넘은 보국(輔國)의 정신’으로 요약하여 비교 검토해 보았다. 춘추전국시대에서 한나라 시대의 걸쳐 있는 이 인물들의 삶에 대해 아산이 독서를 통해 접했다는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가 이들 세 사람과 아산을 비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간에 보이는 삶의 유사성과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대처하는 사고방식과 혹은 행동 방식의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자신의 삶과 사상을 스스로 기록할 수 있었던 사대부 지식인 계층과 달리 상인들은 그들의 생각과 삶을 기록할 능력도 자격도 없었고 그럴만한 여건도 되지 않았다. 따라서 상인 자신이 남긴 문헌이 지극히 희박한 상태에서 문헌적 매개고리를 찾아 전통시대의 상인과 현재 기업가들의 삶과 생각을 연관시켜 본다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따라서 이러한 원천적인 자료의 제약 속에서 필자는 「화식열전」과 같이 간접적으로나마 상인의 삶을 전하고 있는 자료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옛 상인들의 삶과 생각을 재구성해보는 가운데 포괄적인 삶의 연관성 속에서 현대의 기업가들과 그들의 삶과 정신을 비교하는 방식을 취했다.

본고를 작성하면서 필자는 아산이 옛 상인들을 문헌을 통해 접하지 않았더라도,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숭한 위기와 고난을 극복하고 대한민국 제일의 기업가가 된 그 삶의 방식으로 인해 그가 「화식열전」의 여러 인물들과 수천년을 넘어 교감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누군가 지속적으로 이 끊어진 동아시아 상인 정신의 전통과 현대 기업가들의 정신을 관련 짓는 작업을 계속할 때에만, 비로소 역사 속에 소외되어 왔던 상인들의 삶과 현대 기업가들의 삶을 연결하는 매개 고리들을 점점 더 많이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고를 통해 동아시아 전통 상인의 삶이 구체적으로 조명되고, 아울러 아산의 삶과 정신이 동아시아 상인 정신과의 관련 속에서 새롭게 발굴되고 재조명되었기를 희망한다. 또한 아산 정신의 현재적 의의와 미래적 전망들이 전통시대 상인들의 삶의 관련 속에서 보다 거시적인 시각에서 새롭게 재음미되었기를 바란다.

참고 문헌

고전 원전류

『史記』, 「貨殖列傳」, 「平準書」, 「越王句踐世家」

신문·잡지류

『경향신문』, 『동아일보』, 『매일경제』, 『연합뉴스』, 『이투데이』, 『조선일보』, 『한겨레』
『월간조선』

자서전·전집류·연설문·어록류

정주영(1983), 「이천년대의 조국번영」, 『아산정주영 연설문집』(1985), 蔚山大學校 出版局.
아산고희기념출판위원회(1985), 『아산 정주영 연설문집』, 울산대 출판부
정주영(1986), 『이 아침에도 설레임을 안고: 아산정주영연설문집』, 삼성출판사
정주영(1991), 『신용은 현금처럼 분배할 수 없다: 정주영 자전적 아포리즘』, 문화행동
정주영(1991),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제삼기획
정주영 전집간행위원회(1992), 『한국경제의 신화와 현실』, 울산대 출판부
정주영(1997), 『새로운 시작에의 열망』, 울산대 출판부
정주영(1997), 『한국경제 이야기』, 울산대 출판부
정주영(1998), 『이 땅에 태어나서-나의 살아온 이야기』, 솔
김명호 편(2002), 『아산 정주영 어록』, 삼련서점

연구논저

강대중(2015), 「아산 정주영의 학습생애 연구: 학습자자세의 역동을 중심으로」, 『아산
연구총서』 제5권
김석근(2006), 「유교자본주의? 짧은 유행과 긴 여운 그리고 남은 과제」, 『오늘의 동양
사상』, 14호

- 김 신(1999), 「아산 정주영의 사회적 책임정신과 사회복지사업」 『경영사학』 19.
- 김태영(2015), 「아산병원: 사회적 가치와 경쟁력을 아우르다」, 『아산연구총서』 제5권
- 김홍경(1999), 「유교자본주의론의 형성과 전개」, 『동아시아 문화와 사상』, 제2호
- 박상하(2009), 『이기는 정주영, 지지 않은 이병철』, 무한
- 박정웅(2007), 『정주영, 이봐, 해봤어?』, FKI미디어
- 박태균(2014), 「남남갈등으로 표류한 김영삼 정부의 대북정책」, 『통일과 평화』 6집
1호, 서울대학교 통일연구소
- 아산 정주영과 나 편찬위원회(1997) 『(100인 문집) 아산 정주영과 나』, 아산사회복지
사업재단
- 아산사회의학연구소(2002), 『한국의 의료발전에 기여한 아산 정주영의 의료복지사업』,
아산사회복지재단
- 아산재단10년 편찬위원회 편(1987), 『아산재단10년』, 아산복지사업재단
- 엄광용(2009), 『정주영 뛰어넘기』, 새와나무
- 예대열(2013), 「우보천리의 첫걸음이 남북을 변화시키다: 정주영의 소떼 방북과 남북
사회의 변화」, 『민족문화연구』 59호.
- 울산대학교 아산리더십 연구원(2014), 『아산리더십 연구원 소장도서해설집』, 도서출판
레전드
- 이성태(1991), 『위대한 기업가의 가난한 철학』, 민맥
- 이재석(2011), 「유교자본주의론과 현대 경영철학의 재조명」, 『東洋古典研究』, Vol.44,
207~214면
- 정원임 편(2009), 『우리가 몰랐던 정주영: 지역사회 교육운동가 정주영』, KACE
- 정태현(2013), 「1980년대 정주영의 탈이념적 남북경협과 북방경제권 구상」, 『민족문화
연구』 59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 정태현(2015), 「정주영의 탈이념적 실리적 남북경협 구상과 실행」, 『아산연구총서』 제4권
- 조준현 외 4인(2007), 「동아시아 경제발전에서 유교문화의 역할과 유교자본주의론의
비판적 재평가-집단주의와 평등주의를 중심으로」, 『人文研究』, Vol.53, 249~
253 참조.
- 최재성(2015), 「아산사회복지재단의 한국적 의미와 복지사회」, 『아산연구총서』 제5권

<Abstract>

The East asian background of Asan's spirit and Future outlook

Park, Kyeong nam*

This paper looked at the life and spirit of merchants in *Huo Zi Lie Zhuan*(Biographies of Merchants and Artisans) in which we can look at a prototype(原型) in the spirit of the East Asian merchants, in the connection with Asan's Spirit. And tried to review Asan's Spirit as the present manifestation of the East asian traditional merchants' spirit

To this end, I choose Mr.Zhuo卓氏·Fanli范蠡·Bushu卜式 among merchants in *Huo Zi Lie Zhuan* and compared and weighed the life of each of them with the life of Asan in terms of three aspects: 'Indomitable spirit to create a crisis into an opportunity', 'Giving spirit of sharing the wealth', 'Patriotic spirit beyond private interest'. In the analysis, I was able to verify that thought and life of the East Asian traditional merchants is making itself felt in a more expanded and deepened form in the lives and minds of Asan.

The entrepreneurial spirit of challenge and creativity in a disappearing now, and the publicity and social responsibility of corporate is more and more emphasis now, this three mind was derived from the traditions of the East Asian merchants, though extracted from past figures, It is even more urgent called in to our entrepreneurs for a brighter future and the prospect.

Key words : Asan's spirit, Indomitable spirit, the spirit of sharing, patriotic spirit, *Huo Zi Lie Zhuan*(Biographies of Merchants and Artisans)

* HK Professor, Research Institute of Korean Studies, Korea University. E-mail : chubai@korea.ac.kr